

쉬운 우리말을 쓰자



| 2023년 봄 통권 6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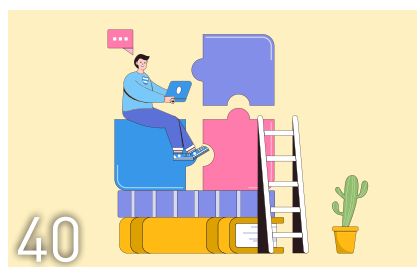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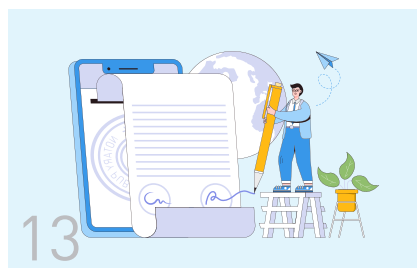
공문서에서 로마자는
어떻게 등장할까

외국어 남용에 불편했던 이야기
공모전 입상 수기와 영상

쉬운 우리말로 바꿔 쓰기
알기 쉬운 용어가 도농장벽
허물길

쉬운 우리말 사전

새말모임이란?
2023년에 꼭 바꿔 써야 할 말 50개
연재만화



쉬운 우리말을 쓰자

펴낸날 2023.3.31.

발행인 이건범

기획 한글문화연대 편집 김명진 유일환

디자인 푸른나무디자인(주)

펴낸곳 사단법인 한글문화연대

ISSN 2951-0112 (31)

© 2021, 한글문화연대

시작하는 말

외국 글자 표기부터 줄여 볼까요? – 이건범 03

생각 더하기 ①

[알기 쉬운 우리 새말]

자체 제작물, 오리지널 콘텐츠 – 김정희 04

생각 더하기 ②

‘프레임워크’는 시민들이 국제관계에

관심을 가지도록 할 수 있을까? – 정태석 07

생각 더하기 ③

고요의 언어, 수어를 듣다 –정다정 10

쉬운 공문서 쓰기

공문서에서 로마자는 어떻게 등장할까? 13

공모전 입상수기

수기

정체불명의 외국어 대신 우리말로 바꿔요 – 보람상 김경진 17

우리 안의 이방인 – 보람상 김정숙 20

‘병영문화 개선’은 우리말 사용으로부터 – 보람상 유성진 24

영상

이상한 아나운서 – 보람상 팔레트 28

남의 이야기가 아니야! – 보람상 이공이일 28

만화

투봉법과 프랑스어 풍부화 정책 29

사례 나누기

알기 쉬운 용어가 도농장벽 허물길 – 최희태 34

영상으로 보는 쉬운 우리말 38

이렇게 바꿨습니다 40

‘쉬운 우리말 검색’ 활용하기 42

새말모임 알아보기 44

2023년에 꼭 바꿔 써야 할 말 50개 48

국립국어원 및 전국 국어문화원 연락처 50

책 소개 51

외국 글자 표기부터 줄여 볼까요?

이건범 한글문화연대 대표

공직 사회에서 국어기본법에 대한 이해가 조금씩 깊어지고 넓어집니다. 특히 공문서 등의 작성 원칙을 정한 제14조 1항 “공공기관등은 공문서등을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써야 하며, 어문 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고 한글로 작성하려는 움직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아무래도 먼저 고칠 수 있는 분야는 외국 글자 표기를 한글 표기로 바꾸는 것입니다. 로마자 알파벳이나 한자로 문장 안에 그냥 적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 사항인데, 이런 표기는 눈에 잘 띄니 고치기도 쉽습니다.

한글문화연대에서는 중앙행정기관 47개 부·처·청·위원회와 1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나오는 모든 보도자료를 매일매일 살핍니다. 보도자료 내용 중 국어기본법의 공문서 작성 규정에서 벗어난 부분은 어찌 고쳐야 하는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 29개 로마자 줄임말 용어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개선을 요청해 왔습니다.

AI→인공 지능, AI→조류 인플루엔자, AR→증강 현실, ASF→아프리카 돼지 열병, BRT→간선 급행 버스, ESG→사회 가치 경영, FTA→자유 무역 협정, GMP→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 HACCP→식품 안전 관리 인증 기준, ICT→정보 통신 기술, IoT→사물 인터넷, IP→지식 재산권, IR→기업 투자 설명회, IT→정보 기술, MOU→업무 협약, NFT→대체 불가 토큰, ODA→공적 개발 원조, OTT→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PM→개인형 이동 장치, R&D→연구 개발, RPA→업무 처리 자동화, SNS→누리 소통망, SOC→사회 기반 시설, TF→전담반, UAM→도심 항공 교통, VR→가상 현실, WHO→세계 보건 기구, WTO→세계 무역 기구, XR→확장 현실

조금씩 성과가 납니다. 외국 글자 표기는 2021년 전체 63,561회 (중앙 29,377회 광역 34,184회)에서 2022년에는 45,931회 (중앙 22,751회, 광역 23,180회)로 떨어져 28%가 줄었습니다. 특히 앞서 열거한 29개 로마자 줄임말을 포함하여 자주 쓰는 한자까지 40개 외국 글자 표기의 감소율은 전체 감소율 28%보다 훨씬 높은 37%였습니다. 집중적으로 개선을 요청한 40개 외국 글자 표기가 전체 외국 글자 표기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021년 29%에서 2022년에는 25%로 줄었습니다.

전반적으로 40개 집중개선 대상 외국 글자 표기의 감소가 전체 외국 글자 표기의 감소를 이끌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위 29개 로마자 줄임말 용어부터 쉬운 우리말로 바꾸어 한글로 적는 데에 집중하는 건 어떨까요? 이 용어들이 보도자료에 많이 나오는 말들입니다. 이 용어들부터 고치면 개선 효과도 높고, 파급 효과도 높으리라 생각합니다.

2023년 3월

[알기 쉬운 우리 새말]

자체 제작물, 오리지널 콘텐츠



김정희
한글문화연대 기획위원

오늘 살펴볼 말은 ‘오리지널 콘텐츠’(original contents)다. 인터넷동영상서비스(오티티)나 전자책 서점 등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 공개하는 제작물을 가리킨다. 연원을 따져 보면 지금부터 무려 20년 전인 2002년 처음 우리 언론에 등장해 지금까지 5만 번이 넘게 쓰인 표현이다.

처음 디지털타임스에 이 표현이 나타났을 때는 ‘원 소스 멀티 유즈’(One Source, Multi-Use)라는 개념을 소개하기 위해서였다. 웹, 모바일, 디지털 티브이 등 여러 매체를 통해 다양하게 유통(멀티 유즈)할 수 있는 하나의 원천 제작물(원 소스)을 가리키는 게 바로 ‘오리지널 콘텐츠’였다. 이후 수입 영상물을 주로 방영하던 국내 위성방송, 케이블 방송에서 수입품이 아닌 ‘자체 제작 국산 프로그램’을 만들어 선보이기 시작할 때도 이를 ‘오리지널 콘텐츠’라고 표현했다.

요즘 이 표현을 워낙 자주 사용하다 보니 언론에서 다룰 때도 우리말 풀이를 덧붙여 주지 않는 편이다. 대신 ‘자체 제작한 오리지널 콘텐츠’라는 식으로 쓰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알고 보면 ‘콘텐츠’는 꽤 까다로운 단어다. 사실 영어 콘텐츠(content)는 원래 ‘내용/내용물’ 일반을 두루 가리키는 단어다. 그런데 1990년대 말 이른바 닷컴 시대가 오면서 ‘각종 유무선 통신망을 통해 제공되

● 연원을 따져 보면 지금부터 무려 20년 전인 2002년
처음 우리 언론에 등장해 지금까지 5만 번이 넘게 쓰인 표현이다. ●

는 디지털 정보'를 특징하는 말로 쓰이게 된 것이다.

‘콘텐츠’에 복수형을 나타내는 ‘s’를 붙인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이들도 있다. 실제로 영어권에서는 ‘오리지널 콘텐츠’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구글 영문판에서 ‘original contents’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수정되어 ‘original content’만 검색된다. ‘오리지널 콘텐츠’가 올바른 표현인 것이다.

어째서일까. 여기서 의미하는 콘텐츠는 불가산(不可算) 명사, 즉 한 개, 두 개라는 식으로 셀 수가 없는 명사이기 때문이다. 복수형으로 쓰이는 ‘콘텐츠’라고 하면 ‘용기 안에 들어 있는 (셀 수 있는) 내용물들’이라거나 ‘(책의) 목차’를 일컬을 때 사용된다. 혹은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 나온 것처럼 ‘만족스러운 상태’를 뜻하기도 한다(‘content’에는 ‘만족하다’, ‘만족스럽다’는 의미도 있다).

어쨌거나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콘텐츠’로 굳어 버린 이 단어는 우리말로 다듬는 것도 만만치 않은 까다로운 외국어다. 디지털 제작물로서 ‘콘텐츠’를 바꿔 쓸 적절한 우리말이 찾아지지 않는 바람에 아직도 웬만한 다듬은 말에 ‘콘텐츠’라는 형태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다. ‘콘텐츠 리터러시’를 ‘콘텐츠 문해력’ 혹은 ‘콘텐츠 이해’로 다듬은 것이 그 예다.

하지만 이번에 살펴본 ‘오리지널 콘텐츠’는 그간 대체물을 찾지 못해 ‘콘텐츠’라는 단어를 벗어날 수 없었던 것과 달리 비교적 쉽게 다듬은 말을 마련할 수 있었다. 바로 그간 언론에서도 많이 사용해 온 ‘자체 제작물’ 혹



“국민수용도 조사 결과 ‘자체 제작물’이 무려 89.5%라는 높은 지지율로 최종 다듬은 말로 결정됐다. 그간 ‘콘텐츠라는 단어를 대체할 말은 없다’고 생각했던 고정관념을 깬다는 점에서도 값진 성과였다.”

은 ‘자체 제작한 작품’이라는 표현이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애초 ‘오리지널 콘텐츠’가 사용됐던 ‘원 소스 멀티 유즈’의 맥락에서는 대체하기 어려운 표현이긴 하겠으나,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의미에서는 잘 맞는 표현이라 하겠다.

새말모임에서는 ‘자체 제작물’ 외에도 ‘고유 제작물’이란 말을 후보로 올렸는데, 국민수용도 조사 결과 ‘자체 제작물’이 무려 89.5%라는 높은 지지율로 최종 다듬은 말로 결정됐다. 그간 ‘콘텐츠라는 단어를 대체할 말은 없다’고 생각했던 고정관념을 깬다는 점에서도 값진 성과였다.

※ 새말모임은 어려운 외래 ‘다듬을 말’이 우리 사회에 널리 퍼지기 전에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새말’로 다듬어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국어, 언론, 통번역, 문학, 정보통신, 보건 등 여러 분야 사람들로 구성된 위원회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이 모임을 꾸리고 있다.

‘프레임워크’는 시민들이 국제관계에 관심을 가지도록 할 수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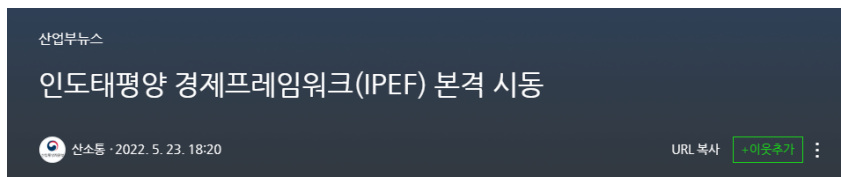
정태석

전북대 일반사회교육과 교수

요즘 국제관계에서 협력이 이루어지는 방식을 표현하는 용어로 ‘프레임워크’라는 외국어가 종종 등장하고 있다.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등에서도 볼 수 있고, 또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라는 기후변화 협약에서도 ‘프레임워크 컨벤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프레임워크(framework)’는 프레임(frame)과 워크(work)의 합성어인데, 프레임은 구조물의 뼈대나 틀을 의미하며 워크는 작업을 의미한다. 이것을 풀어서 설명하면 ‘어떤 작업의 열개나 짜임새’ 정도가 되는데, 한자어로는 ‘골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프레임워크가 어떤 작업과 관련되어 있는지는 미리 정해져 있지 않아서 맥락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지닐 수 있는데, 이런 이유로 우리말 번역어를 일률적으로 정하기가 쉽지 않다. 예를 들어 학문적 연구 활동을 시작할 때 학자들은 연구를 어떻게 진행해 갈 것인지를 구상하게 되는데, 이때 연구를 위한 ‘프레임워크’를 짚고 말한다. 사회현상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개념들을 선택하고 이들이 서로 어떻게 연관될 수 있는지를 상상해보면서 해석이나 설명의 기본 틀이 될 개념들의 열개를 짜보는 것이다. 이처럼 학문적 구상은 서로 연관되는 개념들을 인과관계의 흐름에 따라 배치해보는 과정인데, 이것을 ‘conceptual framework’라고 한다. 우리말로 하면 ‘개념 틀’쯤 된다.

그렇다면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나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에서 프레임워크는 우리말로 어떻게 옮기는 것이 좋을까?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는 인도양과 태평양 지역에 있는 나라들이 경제적 교류를 위해 협력하는 조직을 말하는데, 이때 프레임워크는 교류조직이나 협력조직 정도로 번역할 수 있다. 그래서



제1차 IPEF 장관회의 개최

제1차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장관회의가 23일 저녁 화상으로 열렸습니다. 우리 측에서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 미국, 일본, 호주 등 IPEF 출범에 참여한 13개국 장관들이 참석해 향후 절차 등을 논의했습니다.

IPEF는 기존 자유무역협정(FTA)과 달리 공급망, 디지털, 청정에너지 등 신성장 의제를 핵심 이슈로 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새로운 경제동상 플랫폼입니다.

[인도태평양 지역 주요 경제협력체 비교]

구분	RCEP	CPTPP	IPEF
참가국	15개국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아세안 10개국)	11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멕시코, 칠레, 페루, 아세안 4개국(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13개국 (한국,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아세안 7개국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인구	22.7억명 (29.7%)	5.1억명 (6.7%)	25억명 (32.3%)

IPEF는 '인도-태평양 경제 협력조직/경제 협력틀/경제 협력체'로 쓸 수 있다.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공식 블로그)

인도-태평양 '경제 협력조직', '경제 협력틀', '경제 협력체'와 같이 쓸 수 있겠다. 비슷한 맥락에서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는 생물다양성 보존을 목적으로 여러 나라가 서로 협력하기 위한 체계를 말하므로,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는 '생물다양성 협력체계'나 '생물다양성 협력틀' 정도로 번역할 수 있다.

그런데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에서 프레임워크는 협약 (convention)을 수식하는 단어로서 기후변화에 관한 '빠대'가 된다'라는 의미를 지닌다. 그래서 '기본이 되는 틀'이라는 의미에서 'Framework Convention'은 '기본 협약' 정도로 번역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프레임워크'는 하나의 통일된 번역어로 옮기기가 쉽지 않다. 또 빠대, 골격, 틀과 같은 우리말을 그대로 살려 '인도-태평양 경제 골격'이나 '생물다양성 틀'로 번역하는 것도 너무 어색해서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게 될 것 같지 않다. 결국 의미도 살릴 수 있고 사람들이 사용하기에도 어색함이 적은 번역어를 찾는 것이 최선일 텐데, 이를 위해서는 각각의 의미에 맞춰 적절한 단어를 선택하거나 다른 단어와 결합하여 사

❧ 결국 의미도 살릴 수 있고 사람들이 사용하기에도 어색함이 적은 번역어를 찾는 것이 최선일 텐데, 이를 위해서는 각각의 의미에 맞춰 적절한 단어를 선택하거나 다른 단어와 결합하여 사용하는 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다. ㉨

용하는 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다. 프레임워크를 직역하면 뼈대, 골격, 틀이 되겠지만, 맥락에 따라 의미를 살펴본다면 협력틀, 조직틀, 협의틀, 실행틀 등으로 옮겨볼 수도 있고, ‘틀’ 대신에 ‘체’나 ‘체계’를 넣어 협력체(계), 조직체(계), 협의체(계), 실행체계 등으로 옮겨볼 수도 있겠다.

2022년 12월 2일, 한글문화연대는 ‘로마자 약칭 대응 방안-우리말 약칭 만들기’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열었다. 오늘날 세계화가 확대되고 국제 교류가 늘어나면서, 국제협력 조직들의 수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세계시장경제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기후 위기나 전염병 등으로 지구적 협력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어서 앞으로 로마자 약칭들이 부지기수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누가 무슨 일로 어떤 협력체를 만들었는지를 쉽게 알지 못한다면, 좋은 의미로 만든 협력체들이나 거기서 맺어진 협약들은 시민 대중의 관심을 받기 어렵다.

그래서 이름만 봐도 금방 알아챌 수 있는 우리말 약칭을 만드는 일이 꼭 필요하다. 물론 이 일은 누가 도맡아 할 수는 있는 일이 아니기는 하지만 말이다. 이런 점에서 한글문화연대의 ‘우리말 약칭 만들기’ 활동은 공공의 공간에서 시민 대중이 알기 쉬운 말을 사용하자고 하는 ‘공공언어 운동’의 중요한 부분이다. 서로서로 좋은 우리말 번역어를 제안하려고 노력하고, 다양한 번역어들이 서로 경합하며 좋은 번역어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우리말은 말뜻을 쉽게 알아챌 수 있으면서도 어색하지 않은 더 좋은 공공언어가 될 것이다.

“누가 무슨 일로 어떤 협력체를 만들었는지를 쉽게 알지 못한다면, 좋은 의미로 만든 협력체들이나 거기서 맺어진 협약들은 시민 대중의 관심을 받기 어렵다.”



2022년 인도-태평양 경제 협력체 성명 사진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고요의 언어, 수어를 듣다



정다정

한글문화연대 대학생 기자단 9기

수어는 농인의 손 움직임을 포함한 신체적 신호를 이용하여 의사를 전달하는 시각언어다. 2012년, 장애인 단체가 ‘한국수화언어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서울 광화문에 있는 세종대왕상 앞에 모여서 ‘훈농수어(訓農手語)’를 읽었다. ‘농인의 언어인 수어가 한글과 달라 서로 통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농인들의 답답함이 크고, 자신의 의견을 원활하게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세종인 내가 농인들을 위하여 수어를 만들어 반포한다.’ 이러한 운동의 결과, 2016년 2월 3일, ‘한국수화언어법’이 제정되면서 한국수어도 한국어와 동등한 대한민국 법정 공용어로 인정됐다.

수어는 다른 음성 언어와 마찬가지로 자연 언어에 속하므로 음운론, 형태론, 통사론 등이 존재하며 현재도 국립국어원 등에서 많은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 이렇게 ‘한국수화언어법’ 시행으로 수어가 청각장애인의 고유 언어로 인정되었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중계방송에서는 자막과 수어통역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모두 한국에 사는 한국인이지만, 농인의 모국어는 한국어가 아닌 한국수어다. 즉, 농인과 청인의 언어는 다르다. 그로 인한 문화 차이의 사례를 찾아보았다.

“농인들은 농인으로서 자기동일성을 가지며 ‘농문화’를 형성한다.

이 안에서 생활양식이 자연스럽게 활성화되고 전승된다.

이러한 방식 중 청인과의 문화 차이로 오해가 생길 때도 있다.”



‘고요 속의 외침’ 놀이를 하고 있는 모습 (출처: 티브이엔 신서유기6)

예능 프로그램의 단골 게임인 ‘고요 속의 외침’은 음악이 크게 나오는 헤드폰을 끼 외부 소리를 차단한 뒤, 앞에서 설명하는 사람의 입모양을 보고 정답을 맞추는 게임이다. 이때 입모양을 잘못 읽어 엉뚱한 대답을 하면서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연출된다. ‘고요 속의 외침’은 예능프로그램의 고전이자 단골 게임이지만, 농인이라 밝힌 이가 누리 소통망에 “게임 참여자가 엉뚱한 단어를 말할 때마다 바보 아니냐며 웃는 사람들, 뭐가 재미있는 건지”라며 “일반 학교에서 청인 동급생한테 저런 짓을 수없이 당했다. 재미있을 리가”라고 글을 올렸다.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이들에겐 소리를 차단해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설정 자체가 상처일 수 있는 것이다.

농인들은 농인으로서 자기동일성을 가지며 ‘농문화’를 형성한다. 이 안에서 생활양식이 자연스럽게 활성화되고 전승된다. 이러한 방식 중 청인과의 문화 차이로 오해가 생길 때도 있다. 농인들은 다른 사람을 부를 때 상대방에게 손을 닿게 하여 상대의 주목을 끈다. 이러한 행동이 당연한 농인은 ‘왜? 무슨 일인데’라고 반응하는 반면, 청인에게겐 기분 나쁜 행동으로 느껴질 수 있다. 이러한 독특한 농문화를 이해하거나 인정하지 못하고 의사소통에서는 소리가 우월하다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다.

과거에 비해 소통이 안 된다고 농인을 비웃거나 무시하는 사례는 줄었지만, 여전히 농인에 대한 이해도는 낮은 편이다. 서울수어전문교육원에 따르면 청각장애인에는 농인 외에 입 모양을 읽거나 발성 연습으로 음성언어를 습득해 소통하는 ‘구화인’, 어느 정도 청력이 있어 보청기가 있으면 소통이 가능한 ‘난청인’ 등이 있다. 청각장애인이 등장하는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등장인물이 농인인지 구화인인지 구별 없이 설정된 경우가 많다. 단지 청인이 아니라고 해서 그들이 다 같은 것은 아니다.

청인과 농인 사이 장벽을 허물고, 농인의 언어인 수어를 비롯한 농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다. 많은 사람의 노력으로 법이 제정되었고 또 많은 이들이 수어와 농문화를 널리 알리고 있다. 사례를 살펴보면, 수어 뮤지컬 음악 비디오 〈누가 죄인인가〉는 국내 최초로 시도된 독창적인 수어 예술 작품으로 긍정적인 반



음악 비디오 '누가 죄인인가'는 안중근 의사 이야기를 담은 뮤지컬 '영웅' 삽입곡을 수어로 재현했다.
/(출처; 유튜브 채널 '핸드스피크' 갈무리)

응을 이끌었다. 또다른 농인 창작수어뮤지컬 극단 '난파'는 수어로 연기하고 노래하며 농인의 음악적, 예술적 가능성을 보여주고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을 연출한다. 이 밖에도 농인 영화가 개봉되고, 드라마에서는 농인 배우가 출연하며, 농인 유튜브도 볼 수 있다. 외국 기업의 사례로는 2018년 미국 '스타벅스'가 오는 10월 워싱턴 디시(DC.)에 자사의 첫 번째 수어 통용매장을 개설했다. 청각장애인 문화를 혁신적인 방식으로 통합해 청각장애인 및 난청 장애인들에게 고용과 접근 기회를 제공했다.

영어, 한자 등을 배우며 그 나라 문화를 익히는 것처럼 앞으로 학교나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기본 교육과정의 한 언어로서 수어를 배운다면 농인과 청인이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배려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소리 언어만이 유일한 의사소통 수단은 아니다. 말뿐만이 아닌 손동작과 몸의 위치, 다양한 표정으로 우리는 소통한다. 생각해보면 소통을 넘어서 교감이 필요한 시대에 수어는 그냥 지나치기 아쉬운 방식이다. 소리를 이용한 언어보다 신체를 더 많이 사용하는 수어는 더 직관적이고 감성적이다. 예전에 병어리 장갑이라고 부르던 것을 '손모아장갑'으로 대체하자고 알린 지 몇 해가 지났다. 장갑을 부르는 단어가 바뀌듯 우리의 생각도 바뀌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장애인 수는 전체 인구의 약 5%이다. 하지만 농인을 비롯한 장애인들은 우리 주변에서 잘 보이지 않는다. 몇몇 이들의 편견 어린 시선과 불편한 환경이 그들을 숨게 만든 것이 아닐까. 모든 국민이 평범한 일상을 보내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권리임을 우리 모두가 잊지 말아야 한다.

“ 몇몇 이들의 편견 어린 시선과 불편한 환경이
그들을 숨게 만든 것이 아닐까. 모든 국민이 평범한 일상을 보내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권리임을 우리 모두가 잊지 말아야 한다. ”

공문서에서 로마자는 어떻게 등장할까?



보도자료에 적힌 로마자 용어를 우리말 용어로 바꿔 달라는 공문을 보내다 보면 가끔 ‘로마자를 쓴 적이 없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민원 전화를 받곤 한다. 해당 보도 자료를 다시 살펴보면 우리말 용어를 잘 사용하다가 문서 말미에 로마자 용어를 사용한 것을 볼 수 있다. 단 한 번만 외국 글자를 적어도 국어기본법 위반이기에 억울함을 토로 하는 공직자가 꽤나 많은 편이다.

또한, 보도자료 내용을 살펴다 보면 첫 문장에 우리말로 번역한 용어를 적은 뒤 ‘이하 OO라고 한다’라고 적고 이후 쪽 로마자 줄임말을 쓰는 경우도 많다. 언론에서 지면의 한계 때문에 이런 방식을 많이 써 마치 올바른 글쓰기 방법처럼 오해하는데, 국어기본법에 따르면 한자 또는 외국 글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괄호 안’에 적을 수 있게 허용했다. 이외의 경우 모두 국어기본법 위반이다.

이번 호는 공문서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로마자의 잘못된 사용 사례와 국어기본법의 한글전용에 대해 짚어본다.

국어기본법과 국어기본법 시행령

국어기본법

제14조(공문서등의 작성·평가)

① 공공기관등은 공문서등을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써야 하며,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

국어기본법 제14조는 공문서등의 작성과 평가에 관한 규정으로 ‘공공기관등은 공문서등을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써야 하며,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살필 내용은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내용을 간과하거나 아예 모른 채 보도자료에 한자나 로마자 등을 그대로 쓰거나 혹은 외국 문자를 먼저 적고 괄호 속에 한글로 적는 사례가 많다.

예를 들어 ‘AI 확산으로, 농민들 골머리 앓아’라고 썼다면 공문서 한글전용 위반이다. ‘에이아이(AI) 확산으로, 농민들 골머리 앓아’라고 썼다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이는 음차 표기에 지나지 않으므로 ‘조류 인플루엔자’라고 명확히 밝혀 적어주는 것이 좋다. 또한, ‘에이아이’라고 음차 표기를 하게 되면 본문의 문맥에 따라 ‘인공 지능’이라는 뜻과 헷갈릴 수 있다. 우리말로 해석이 되는 단어는 최대한 우리말로 적어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1조에서는 ‘공문서등의 작성과 한글 사용’이라고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다. 공문서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는 사례를 적어두었다.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1조(공문서등의 작성과 한글 사용)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문서등을 작성할 때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新造語)를 사용하는 경우

보도자료에서 볼 수 있는 잘못된 로마자 활용 사례

국민이 가장 쉽고 빠르게 접할 수 있는 공문서는 각 공공기관의 보도자료이다. 언론에서도 공공기관의 보도자료를 그대로 보도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널리 퍼지는 공문서라는 점에서 당연히 한글로만 적어야 하지만 예상과 달리 로마자를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그 유형은 다음과 같다.

1유형. AI, R&D, task force 등 로마자 원문을 그대로 적는 경우이다.

2유형. ‘CES(세계가전전시회)’, ‘IEA(국제에너지기구)’, ‘前(전)’ 등 외국 문자를 먼저 쓰고 괄호 안에 한글을 병기하는 경우이다.

3유형.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라고 한다)’ 등 첫 문장에 한글로 표기해두고 다음부터는 로마자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이다.

1유형은 국어기본법 한글전용 규정을 정면으로 어긴 사례이다. 영어 단어를 로마자 철자 그대로 적는 경우인데,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에는 AI, R&D, TF 등이 있다. 또, 지자체 등에서 주최하는 행사 이름이나 유행어 성격의 말을 로마자 그대로 표기하는 경우도 많다. 특히, 신조어나 전문용어 등을 로마자 그대로 적는 경우가 많은데 먼저 한글로 뜻을 분명하게 밝혀 쓴 뒤, 로마자 철자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괄호 안에 적는 즉, 병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task force (X)	→	티에프(TF) 태스크포스(task force)	→	전담반, 전담 조직 (O)
----------------	---	------------------------------	---	----------------

2유형은 외국 글자를 앞세워 적었기 때문에 한글전용 규정을 위반한 사례이다. 국어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외국 글자를 쓸 경우, 우리말 용어를 먼저 적고 괄호 안에 로마자를 병기해야 한다. 그런데 약어로 이루어진 행사명, 기구명은 대부분 로마자 줄임말을 먼저 적고 우리말 용어를 괄호 안에 적는 경우가 많다. 또는, 외국에서 주최한 행사 이름이나, 새로 만들어지는 국제기구 등은 임의로 번역할 수 없다며 책임을 떠넘기기도 한다.

CES (X)	→	시이에스(CES)	→	세계가전전시회 (O)
IEA (X)	→	아이이에이(IEA)	→	국제에너지기구 (O)

하지만 온라인 백과사전이나 언론 기사 등을 살펴보면 대부분 국민의 알 권리를 지켜 주기 위해 외국어로 이루어진 이름을 번역하여 제공하고 있다. 이런 번역어가 적절하지 않다고 느낀다면 국립국어원의 ‘정책용어 상담창구’를 활용하여 적절한 말을 찾을 수 있다. 이런 과정을 모두 거친 후에도 마땅한 우리말 용어가 없다면 음차하여 한글로 적는 것이 국어기본법을 지키는 길이다.

3유형은 여러 보도자료와 언론에서 많이 보이는 형태이다. 경제성과 편의를 이유로 우리말을 첫 문장에 한 번만 쓰면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명백히 국어기본법 위반이다. 원어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면 첫 문장에 우리말 용어를 앞세워 쓴 뒤 로마자를 괄호 안에 병기하고, 그 후 모두 우리말 용어로 쓰면 된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라고 한다) (X)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 한 번만 괄호 안에 쓰고 나머지는 우리말로

예시로 든 아프리카돼지열병이라는 단어도 ASF로만 쓴다면, 이 로마자가 무엇을 뜻하는지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A’, ‘S’, ‘F’, 각 로마자가 어떤 단어의 첫 글자인지를 알아야 뜻 해석이 가능한데, ‘African’, ‘Swine’, ‘Fever’ 세 단어를 유추해야 하며, ‘Swine’는 ‘가축화된 돼지’라는 전문적인 용어 해석까지 필요하다.

공문서를 작성하는 사람은 읽는 이가 로마자를 사용해 얻는 문서의 경제성과, 우리말을 사용해 얻는 정보 해석의 편리함 중 무엇을 더 선호할지 고민해야 한다.

위의 세 유형과 별개로 최근 국어기본법을 어기진 않았으나 우리말 표현이 분명할지라도 항상 쓰던 표현을 버리지 못해 우리말 용어를 적고, 로마자를 괄호 안에 병기하는 보도자료도 많이 볼 수 있다. 공문서를 한글로 작성하는 관행을 만들기 위해선 불필요하게 사용하는 로마자를 줄일 필요가 있다.

업무 협약(MOU) ← 한글 전용 위반은 아니나, 불필요한 로마자 병기

로마자 줄임말 용어는 한글로 적는 것에 비해 글자 수가 적어 더 경제적이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그 뜻을 다시 풀어서 국민이 정책이나 내용을 이해하기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든다. 글자 수가 적어 경제적이라는 점이 로마자를 쓰는 이유라면 이제는 외국 글자로 된 로마자 줄임말을 사용하기보다 우리말 이름을 줄여서 부르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정제불경의 외국어 대신 우리말로 바꾸어요!

보람상 김경진



“GR마크랑 NEP가 뭐니? 이런 용어들 때문에 요즘은 기사를 읽는 것도 턱턱 막히는구나!”

“GR마크요? 글썄요, NEP도 잘 모르겠는데요.”

아버님이 건넨 기사를 읽어보니, 그 기사만으로는 GR마크와 NEP가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신문 기사 어디에도 이에 대한 우리말 용어나 설명은 없었다. 뜻을 찾아보았더니 GR은 ‘Good Recycled(굿 리사이클드)’의 약자로 우수 재활용품 인증을 받은 제품을 일컫는 용어였다. NEP는 ‘New Excellent Product(뉴 엑셀런트 프로덕트)’의 약자로 우수 신기술 제품을 말하는 것이었다.

같은 기사에 나와 있는 ‘Net-zero(넷 제로)’라는 말도 눈에 띄었다. 탄소중립이라는 우리말이 있는데도 굳이 ‘Net-zero’라는 외국어를 써 내용을 파악하기 쉽지 않았다.

어느덧 친환경과 탄소중립은 국제 에너지 시장의 중요한 화두가 되었다. 이와 관련한 정부 정책들도 쏟아져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정부 정책들을 볼 때마다 관련 단어들이 온통 어려운 외국어로 돼 있어서 좀처럼 피부로 체감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했다. 젊은 나조차도 그 뜻을 단번에 알아듣기가 어려운데, 더욱이 나이 지긋한 아버님은 기사를 읽을 때마다 얼마나 답답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쉬운 공공언어를 사용해야 하는 정부에서 걸핏

“우리말을 쓰면 단어는 길어질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몸소 실감한 시간이었다.”

하면 어려운 외국어를 사용하고 있다. 예전에는 어려운 한자어를 사용해 이해하기가 힘들었다면, 요즘엔 영어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것 같다.

그로부터 며칠 후, 문화센터에서 생활 요리 수업을 듣는데 강사분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관리하는 ‘팜투테이블(Farm to Table)’이라는 용어를 꺼냈다. 당시 수업에는 나와 같은 중년 여성들뿐만 아니라,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도 많았다. 옆자리에 앉아 계시던 어르신이 나를 향해 “강사 선생님이 얘기한 팜투 어찌고가 뭐야?”라고 물으셨다. 바로 그 옆에 앉은 어르신도 반응이 비슷했다.

그리고 보니 저번 수업 때도 강사분이 해쩍과 지에이피(GAP) 인증 등 어려운 용어들을 말해서 어르신들이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을 보였던 기억이 났다. 낯선 외국어 정책 용어들이 요리를 배우고자 하는 수강생들의 열의를 꺾어선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손을 들고 강사분에게 식품과 관련된 정책 용어를 보다 쉬운 우리말로 얘기해주시면 더 쉽고 빠르게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정중히 부탁드렸다.

그러자 강사분께서는 “어머나, 수강생 여러분, 죄송해요! 이런 단어들이 입에 붙어 있다 보니 저도 모르게 영어 그대로 말씀드렸네요. 무슨 말인지 어려웠죠? 제가 쉽게 설명드릴게요.”라고 하며 웃었다. 그리고는 팜투테이블은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해쩍은 식품안전관리 인증 기준, 지에이피는 농산물우수관리제도로 바꿔 다시 설명해주었다.

어르신들을 비롯한 수강생들은 다들 고개를 끄덕이면서 우리말로 바뀌서 얘기하니 귀에 더 쏙쏙 잘 들어온다는 반응을 보였다. 우리말을 쓰면 단어는 길어질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몸소 실감한 시간이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주변을 찬찬히 둘러보니 우리 생활 곳곳에서 외국어가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었다. 특히 교육 현장에서 외국어를 남용하는 수준은 상당히 우려스러운 정도였다.

얼마 전 학교를 다녀온 아이가 “엄마, 스쿨존에 옐로 카펫이 설치됐어!”라고 내게 말했다. 우리말도 아직 정확히 구사하지 못하는 아이가 무슨 뜻인지도 모른 채 외국어를 섞어 쓰는 걸 보고 너무 당황스러웠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아이들이 교육 현장에서 접하는 공공언어에도 다른 영역에서처럼 지

나치게 많은 외국어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 스쿨존을 ‘어린이 보호 구역’으로, 옐로 카펫은 ‘건널목 안전 구역’ 등으로 바꿔 쓰면 더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데도, 아이들의 교육과 밀접하게 관련된 분야에서조차 수없이 외국어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이들의 학교에서 보낸 가정통신문을 찬찬히 살펴보았다. ‘업로드’와 ‘다운로드’, ‘파노라마 촬영, 바우처, 홈페이지, 스쿨투게더, 시스템, 가이드, 워크북’ 등 다양한 외국어들이 섞여 있었다. 학교에서 진행한 행사 안내문에는 ‘아카데미, 힐링캠프, 힐링데이, 에코캠프, BOOK 페스티벌’ 등이 적혀 있었고, 학교 누리집에도 ‘팝업존, 배너, 사이트맵, 포털시스템, 사이버신고’ 등 무수히 많은 외국어가 있었다.

일련의 상황들을 파악하면서, 적어도 우리집에서만큼은 외국어를 무분별하게 쓰지 말고

“ 공공기관에서 쓰는 공공언어는
최대한 쉬운 우리말을 써야 정책을 제대로 홍보할 수 있고,
국민의 알 권리도 지킬 수 있다.
나아가 모든 국민이 나라의 중요한 정책들을 놓치지 않고
제대로 이해해야 사회가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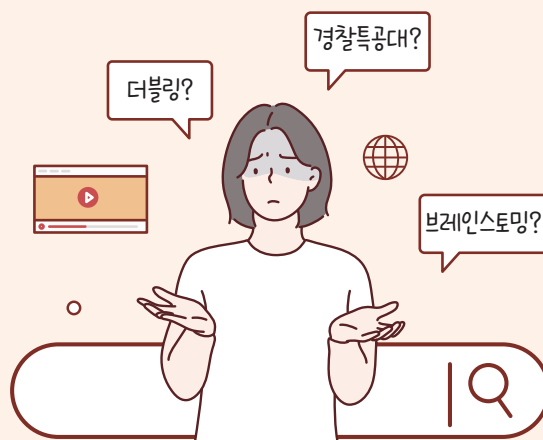
우리말로 순화해서 쓰는 분위기를 만들어 보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 이를 위해 남편과 아이들에게 일상생활에서 외국어 사용을 자제할 것을 제안했고, 대체하기 어려운 외국어가 나오면 국립국어원에서 순화어 목록을 참고해 우리말로 알려주기도 했다.

국가 정책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새로운 기술과 개념을 적용하다 보면 분명 외국어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공공기관에서 외국어 표현을 다듬지 않고 그대로 사용한다면, 정작 중요한 정책을 전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지 못하게 될 수 있다.

공공기관에서 쓰는 공공언어는 최대한 쉬운 우리말을 써야 정책을 제대로 홍보할 수 있고, 국민의 알 권리도 지킬 수 있다. 나아가 모든 국민이 나라의 중요한 정책들을 놓치지 않고 제대로 이해해야 사회가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와 국민 할 것 없이 나라의 모든 주체가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 쉬운 우리말 사용을 습관화했으면 좋겠다.

우리 안의 이방인

보람상 김정숙



얼마 전 무심히 텔레비전 채널을 돌리고 있다가 제이티비시(JTBC) 뉴스 자막이 눈에 들어왔는데,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아 고개를 갸우뚱했다.

‘대우조선 경찰특공대 투입, 브레인스토밍 얘기하다.’

기억하기로 이런 자막이었는데, ‘경찰특공대’에 이어 ‘브레인스토밍’이 나오니까 두 단어가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고 생뚱맞게 느껴졌다. ‘브레인스토밍’이라는 단어를 보는 순간 자유 연상 두뇌 그림이 떠올랐는데 그게 경찰특공대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브레인스토밍’이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 손전화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았다. 브레인스토밍은 ‘자유롭게 의견을 얘기하는 회의 형식’이었다. 문제는 브레인스토밍의 정확한 의미를 알고 나서도 뉴스 자막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인터넷에는 브레인스토밍의 뜻풀이에 이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얘기했던 브레인스토밍에 대한 기사들이 이어졌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7월 27일 국회 본회의장 대정부 질문에서 한 답변에 관한 기사였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우조선해양 파업 현장에 경찰특공대 투입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는지에 대한 국회의원의 질의가 있었고 이에 답변하면서 브레인스토밍 단어가 나온 모양이다.

“‘대우조선 경찰특공대 투입, 브레인스토밍 얘기하다.’”

“경찰청과 소방청이 함께 모여서 브레인스토밍 얘기를 했었다. 그래서 브레인스토밍에 대해서 발생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책을 논의했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경찰특공대 얘기도 나왔다.”

경찰특공대는 테러 진압이나 총기 폭발물 사용 범죄 등에 투입되는 전문 부대라고 한다. 그런데 임금 인상을 요구하면서 농성에 들어간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에 대하여 경찰특공대 투입을 검토했다니! 현장에 충돌이 일어난 것도 아닌데 노동자를 특공대를 투입해서 진압해야 하는 대상으로 보는 문제의 심각성을 국회의원이 지적하자, 장관은 ‘브레인스토밍’ 어찌고 하면서 변명한 것이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뭔가 전문적인 냄새를 풍기는 외국어를 사용해 답변함으로써 이 단어의 의미를 정확히 모르는 나 같은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수준 높은 대화를 나눴다는 걸 은연 중에 과시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브레인스토밍이라는 외국어를 사용해 경찰특공대 투입이라는 위험한 시각을 적당히 가려버리는 효과도 보려 하지 않았을까.

한 가지 더 짚고 가자면, ‘브레인스토밍’을 잘 모르는 사람이라도 표현을 적절하게 했으면 앞뒤 문맥에 따라 대충 이해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이다. 그런데 ‘브레인스토밍 얘기를 했었다.’라고 하니, ‘회의를 얘기했다.’는 말이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는 셈이다. 본인도 이 단어의 의미를 정확히 몰랐거나 아니면 이마저도 의도적인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의심까지 들었다.

“브레인스토밍은 ‘자유롭게 의견을 얘기하는 회의 형식’이었다.
문제는 브레인스토밍의 정확한 의미를 알고 나서도
뉴스 자막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요즘 텔레비전 방송을 보고 있노라면 브레인스토밍처럼 잘 알지 못하는 외국어들이 수시로 튀어나와 사람을 당황하게 한다. 와이티엔(YTN) 뉴스에서는 코로나에 관한 보도를 하면서 ‘위중증 환자 더블링’이라는 자막을 내보냈다. ‘더블링?’ 평소 사용하지 않는 말이라 바로 이해가 되지 않아 손전화로 ‘더블링’을 검색하고 나서야 내가 알고 있는 ‘더블(double)’이라는 영어 단어를 떠올릴 수 있었고, 환자가 배로 늘었다는 의미였음을 깨달았다. 평소에 잘 쓰지 않는 말인 데다가 영어 단어를 로마자로 표현하지 않고 한글로 표기하니 바로 의미가 와닿지 않는 것이다. 도슨트(EBS), 베이비부머(KBS), 오픈런(SBS), 이슈 PICK 쌤과 함께(KBS)……. 이런 이름들은 얼마든지 우리말로 바꿔 쓸 수 있는데도 공영방송에서 버젓이 사용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음악방송 엠넷을 보다 보면 마치 우리가 영어를 공용어로 쓰고

“ 젊은 사람들이 쓰는 축약어나 유행어까지 넘쳐나는 요즘
 방송에서 튀어나오는 외국어까지 그 뜻을 찾아봐야
 할 정도가 되니 문득문득 우리나라 안에서
 이방인이 된 것 같은 느낌을 받기도 한다.”

있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다.

며칠 전에도 에스비에스(SBS)의 ‘좋은 아침’ 재방송을 보고 있는데, 만병의 원인이라는 내장지방에 대하여 얘기하면서 한 아나운서가, “막 해비한 것 같고 막 팻한 것 같고....”라며 너스레를 떨었다. 살찌서 몸이 무겁고 거북한 느낌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초대 손님도 아니고 아나운서가 그런 식으로 표현하니, 도대체 방송을 진행하는 사람으로서 언어에 대한 자기 정체성이 있거나 한 것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익숙하지 않은 외국어를 사용하는 것은 신문도 마찬가지다. 한겨레 신문을 보고 있는데, 기사 표제어에 ‘도어스테핑’이란 단어가 보였다. 도어스테핑이 뭔지 알지 못해서 뜻을 찾아보는데, 인터넷에는 이 단어가 온통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기사로 연결되고 있었다. 그러니까 도어스테핑은 ‘약식 기자회견’이라는 뜻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도어스테핑을 잠정 중단했다.”느니, “도어스테핑으로 인한 말실수로 지지율이 떨어졌다.”느니 하는 기사들이었다. 정부에서 뭔가를 발표하면서 외국어 단어를 사용하면 방송이나 신문 등 언론에서 이를 그대로 실어 나르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실 국민제안, 트래픽 어뷰징 때문에 탑10 선정 안기로”(뉴스1, 22년 8월 1일 기사)

대통령실에서, 국민들이 제안한 정책들 중 열 가지를 정하기로 했는데 트래픽 어뷰징 때문에 선정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트래픽 어뷰징’이라는 외국어를 보는 순간, ‘으악’ 하고 소리를 지르고 싶을 정도로 짜증이 났다. 정부에서부터 이런 외국어 단어를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하고 있으니, ‘권위 있는 정부’가 아니라 ‘권위를 내세우는 정부’임에 틀림없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20대 후반, 그러니까 30여 년 전 제주 토박이인 내가 처음으로 몇 달간 서울에 살게 되었을 때의 일이다. 어느 공공주차장에 갔는데, 한 아주머니가 “파킹이 안 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파킹? 주차한다는 말인 것 같은데, 왜 주차라는 말을 놔두고 굳이 외국어인 파킹이란 말을 쓰고 있는지 황당했다. ‘파킹’뿐만이 아니라 이런저런 외국어 단어를 마구 섞어 쓰는 서울 사람들을 보면서 분개했던 기억이 난다. 제주도 토박이가 고층 빌딩 때문이 아니라 수시로 들리는 외국어 때문에 서울에 위화감을 느꼈던 몇 달이었다.

솔직히 모르는 외국어가 나오면, 다들 아는데 나만 모르는 건 아닌가 하는 자격지심까지 슬그머니 고개를 든다. 안 그래도 젊은 사람들이 쓰는 축약어나 유행어까지 넘쳐나는 요즘이라 그래도 소통은 제대로 하고 살려고 검색하고 또 검색하는데, 방송에서 튀어나오는 외국어까지 그 뜻을 찾아봐야 할 정도가 되니 문득문득 우리나라 안에서 이방인이 된 것 같은 느낌을 받기도 한다.

8월 12일 자 한겨레 신문에서, 부산시의 영어 상용 도시 추진에 한글 단체들이 철회하라며 시위를 예고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읽었다. “공공기관에서 영어 사용 환경을 조성하면 정책, 사업, 공공시설 이름 등에 영어 단어를 많이 사용하게 되고 결국 영어 능력이 떨어지는 시민들은 정확한 정보를 알기 어렵게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었다. 수시로 영어 단어의 뜻을 검색해야 하는, 영어 능력이 떨어지는 한 시민으로서 100% 공감하는 주장이다. 솔직히 영어 상용 도시 추진은 서로 모르는 언어를 사용해도 손전화 앱으로 소통할 수 있는 시대인데 여기에도 맞지 않는 노예 발상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교육을 많이 받았든 적게 받았든,
나이가 많은 적든 간에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우리말로
공공의 언어를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본다.”

적어도 정부나 방송, 공공기관에서는 우리말을 보호하고 언어를 통하여 서로 연대감을 키우려고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일제강점기에 조선말을 말살하려는 정책에 맞서 몰래 한글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며 지켜온 우리말이 아닌가. 어렸을 때 할머니, 할아버지한테서 일본 순사들한테 들리지 않으려고 한밤중에 이불로 창문을 막고 몰래 한글을 배웠다는 말을 들었다. 언어와 문자가 민족혼을 묶어주는 동아줄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교육을 많이 받았든 적게 받았든, 나이가 많은 적든 간에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우리말로 공공의 언어를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본다.

‘병영문화 개선’은 우리말 사용으로부터

보람상 유성진



피약별이 내리쬐던 2007년 여름, 부대 간부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다. 곧 있을 유격훈련에 대해 이런 저런대화를 나누다가 한 후배가 얘기했다.

“이번에 ‘패스트로프 훈련’ 참가할 희망자 뽑는다는데, 지원 안 하십니까? 훈련비도 지급됩니다.”

‘패스트로프 훈련’이라는 말에 줄다리기가 떠올랐다. 나는 팔 힘이 세서 줄다리를 곧잘 했기 때문에 ‘어, 그럼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일단 패스트로프 훈련이라는 말에 나는 ‘빠르게 굵은 밧줄 잡아당기기’ 훈련이라고 예상했는데 명확하지 않아서 후배에게 물었다.

“근데 ‘패스트로프 훈련’이 뭐야?”

“아, 그거 말입니까? 그런 훈련이 있습니다. 좀 위험한 훈련입니다.”

후배는 그냥 좀 위험한 훈련이라는 말 한마디만 남기고 사라졌다. 나는 계속 궁금했다. 도대체 ‘패스트로프 훈련’이 무엇일까 궁금하여 찾아보았다. 패스트로프는 헬기에 탑승해서 굵은 로프를 타고 내려오는 훈련방식이었다. 헬기가 착륙할 수 없는 장소에 헬기의 병력을 배치하는 데 유용한 훈련으로 높은 상공에서 빠르게 강하하는 훈련이었다. ‘패스트로프 훈련’은 영국의 밧줄 제조업체인 ‘말로우 로프(Marlow Ropes)’사에서 처음 개발해서 포클랜드 전쟁 때 처음으로 진행된 훈련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이 지어졌고, 군에서 훈련 명칭

으로 계속 사용해 온 것도 확인했다. 그렇지만 나는 ‘저공 밧줄 강하 훈련’이라는 우리말로 바꿔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군대는 여차하면 즉각 전쟁에 참가해야 하는 집단이다. 어느 순간에 상황이 급박하게 전환될지 모르기 때문에 용어 하나하나가 전 인원이 즉각 이해할 수 있는 단어여야 한다.

군에는 장교, 부사관, 용사라는 신분이 공존한다. 장교들은 교육기관에서 군사 용어, 훈련 용어 등을 자세히 학습하지만 부사관과 용사는 이러한 훈련 용어라든지, 긴박한 상황에서 사용하는 군사 용어를 자대에서 배우지 않으면 모를 수밖에 없다. 그런데 군 생활 중 이런 용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충분하게 주어지는가? 군 생활 기간은 1년 6개월 정도다. 부대에서 자신이 맡은 직책을 이해하고, 병영생활에서 여러 가지 익혀야 할 것들과 부대 주변 전우들의 이름을 확인하여 적응하기에도 빠듯한 시간이다. 그렇다면 현 실태는 어떤가? 부대에서 패스트로프 훈련이 있어서 시행한다고 하면 제대로 알지 못하는 용사들은 ‘그게 뭐지? 하라면 그냥 해야지.’ 하고 그냥 참여한다.

“군대는 여차하면 즉각 전쟁에 참가해야 하는 집단이다.
어느 순간에 상황이 급박하게 전환될지 모르기 때문에
용어 하나하나가 전 인원이 즉각 이해할 수 있는 단어여야 한다.”

그 일이 내 머릿속에서 잊힐 무렵, 나는 과학화 전투 훈련을 통제하는 부대로 이동하게 되었다. 그곳에서 사용하는 모든 장비들의 명칭은 외국어에서 한국어로 점차 바뀌고 있었다. 그것은 아주 좋은 현상이었다. ‘이제 군에서도 외국어들을 우리말로 바꾸어 사용하는구나.’ 하는 기쁨과 함께 우리 군도 이제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했다. 처음 과학화 전투 훈련 장비가 도입되었을 때, 이 장비의 명칭은 ‘마일즈 장비’였는데, ‘마일즈 장비’란 실전 같은 무기 효과 및 전장 효과를 묘사하기 위해 레이저 빔 특성을 이용하여 사격을 모의하고, 화기 사용의 시정각적 효과를 묘사하는 장비다. 이 장비의 명칭이 ‘전투 훈련 장비’로 바뀌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서 과장님이 과원들에게 우리 과가 락드릴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락드릴장? 암석과 드릴로 조형물 제작하는 작업장인가 보네.’ 작업을 많이 하는 부대에서 근무하던 나는 당연히 무엇인가를 만드는 작업장인 줄 알았다. 과장님께서 준비 물품을 챙기라고 하셔서 전기드릴과 나사못을 잔뜩 챙겼지만 막상 현장에 가서 망신을 당했다.

“야, 이 사람이, 그걸 왜 가져왔어? 락드릴장 만든다니까? 락드릴장 몰라? 모의 훈련하는

“공식적으로 외국어를 남발하다 보니 병영생활의 저변에서는
예전부터 관행처럼 사용해 오던 여러 가지 은어와 외국어를
사용하는 일이 마치 병영 문화인 듯 넘쳐난다.”

곳 말이야.”

그 작업의 준비품은 군사지도와 부대를 표시하는 말판이었다. 그곳은 작업장이 아니었다. 군대에서 하는 모의 전술훈련의 한 형태로 부대 배치나 기동 등을 검증하기 위해 미리 짠 시나리오를 가지고 지도에 아군과 적의 부대 배치, 적의 예상 기동로 및 공격 형태, 아군 기동로 등을 표시해 가면서 작전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곳이었다. 그래서 큰 공터에서 지도와 부대 말판으로 토의하면서 훈련을 진행하는 것이었다. 나는 의문이 들었다.

‘그걸 왜 락드릴이라고 하지? 그럼 진짜 암석을 뚫는 드릴하고 헛갈릴 텐데....’

내 의문은 현실과 같았다. ‘락드릴(rock drill)’을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첫 번째 뜻은 모의 전술훈련이었고, 두 번째 뜻은 암석을 뚫는 드릴이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헛갈릴 수 있는 ‘락드릴’보다는 ‘모의훈련 예행연습’이라든지, ‘전투 개념 모의 진행’ 등 이러한 용어들을 사용하면 정확히 표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아쉬운 생각이 들었다. 우리 사회 저변에서부터 외국 용어들이 우리말로 바뀌고는 있지만, 우리 군은 한미 연합 작전 체계도 있고, 주로 용어들이 미군 또는 연합군에서 유래된 말들이 많아서 외국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핑계에 불과하다. 자주국방을 외치면서 용어 사용에서 외국어를 남발한다면 자주국방은 이룰 수가 없다고 생각한다.

위 두 가지 사례에는 공통점이 한 가지 있다. 초급간부였던 나에게 아무도 ‘패스트로프’가 무엇인지, ‘락 드릴’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냥 다 눈치껏 알겠거니 했지만 초급간부들이나 용사들이 모두 그렇게 주도적으로 용어의 의미를 파악하지는 않는다.

또한 이렇게 공식적으로 외국어를 남발하다 보니 병영생활의 저변에서는 예전부터 관행처럼 사용해 오던 여러 가지 은어와 외국어를 사용하는 일이 마치 병영 문화인 듯 넘쳐난다. 은어 사용의 예를 들어 보면 방상 내피를 ‘깔깔이’라고 하고, 전역이 얼마 안 남은 병장을 ‘말년 병장’이라고 하며 식사 후 남은 잔반이나 군 생활을 했던 기간을 ‘짬’이라고 표현한다. 이 발병을 ‘까새’라고 하며 부대 내 마트 관리병을 ‘피돌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표현들은 고참 병으로부터 들은 것을 후임병이 고참이 되어 되풀이하다 보니 완전히 일상 용어처럼 되어버린 것이다. 문제는 군 간부들부터 이러한 용어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한다는 것이다.

자주 사용하는 외국어로는 어떤 사물이나 현상이 가짜이거나 제대로 일하지 않고 대충 일하는 것을 ‘가라’라고 표현하며, 삽으로 지면을 평탄화 작업하는 것을 ‘나라시’라고 한다. 일을 끝마치는 것을 ‘시마이’ 한다고 하며 아예, 깨끗이, 깔끔히 한다는 것을 ‘아싸리’라고 애기한다. 이러한 용어들은 일제 시대의 잔재로, 군에서 사용하는 용어 가운데 아직까지 일본어 표현이 남아 있는 것이다. 이 외에도 일본식 한자어를 사용하는 일이 있는데, 군의 각종 행사 등에서 공식적인 용어로 사용되는 각개 점호는 인원 점검을 뜻하고, 구보는 달리기, 내무반은 생활관, 요대는 허리띠를 뜻한다. 점차 우리말로 바뀌고는 있지만 아직 미미한 실정이다. 일본식 외국어 표현도 남발되는데 시멘트 작업, 콘크리트 작업을 일컬어 ‘공구리’ 친다고 하고, 식당이라든지 생활관 바닥 물청소를 ‘미싱’ 한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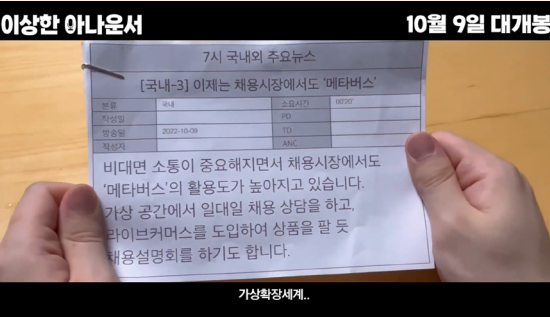
“우리말을 사용함으로써 올바른 군대 언어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병영 문화 개선’의 첫걸음이라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군에서는 사회와 구별된 고유의 언어로 이러한 용어들을 사용하지만 이 일들이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고쳐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군인은 없다. 이러한 군대 언어 속 일본어의 잔재는 일제강점기를 겪은 우리 민족에게는 아픈 역사다. 계속해서 이러한 일본식 한자어와 일본어를 사용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며, 우리는 이에 관심을 기울이고 사용을 줄여 나가야 한다.

이 밖에도 군에서 사용하는 외래어와 외국어는 많다. 지침이나 방침을 일컬어 ‘가이드라인’이라고 공문서에 표기하며, 의무병을 ‘메딕’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발 기구는 ‘바리깡’이라고 부르며, 호위 차량을 ‘사이드카’라고 부른다. 이러한 외래어나 외국어는 위화감을 주고 소통에 벽을 만들 수 있다. 군 내에 이렇게 잘못된 언어 습관이 너무나 많아 국방부와 군에서는 언어 개선을 위한 장병 교육 및 캠페인을 다년간 시행하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하루아침에 전군이 개선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고쳐야 한다는 것을 인식했다면 이를 실제로 바꾸려고 노력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말을 사랑하고 바른 언어생활을 하는 것도 나라를 지키는 것처럼 애국의 한 방법이다. 최근 ‘병영 문화 개선’을 목표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며 실행하고 있는 우리 군이 정말 고려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우리말을 사용함으로써 올바른 군대 언어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병영 문화 개선’의 첫걸음이라는 것이다.

이상한 아나운서

보람상 팔레트



방송국에서 촉망받는 ‘엘리트’ 아나운서, 어느 날부터 외국어 대신 우리말만 쓰게 되는데…….

우리말 사랑꾼이 된 아나운서의 보도국 생존기! 과연 그 결말은?

(영화 ‘정직한 후보’ 패러디)



남의 이야기가 아니야!

보람상 이공이일



‘가스라이팅’, ‘스미싱’, ‘피싱’ 뜻도 다 알려주는 범죄 용어인데 왜 이걸 당해?! 친구와 함께 과제를 하다 집에 돌아와 보니 종류별로 사기를 당해 풍비박산이 나 있는 집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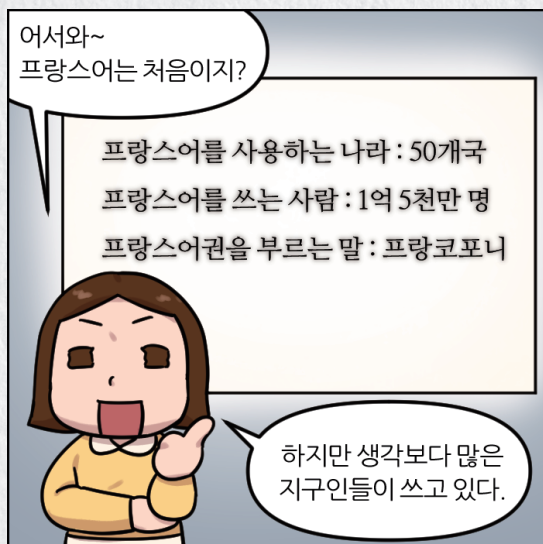
외국어를 꼭 우리말로 바꿔야 하는 이유를 몸으로 느끼게 되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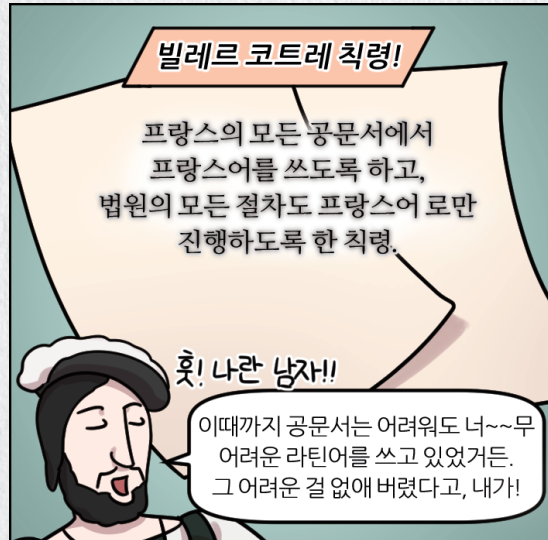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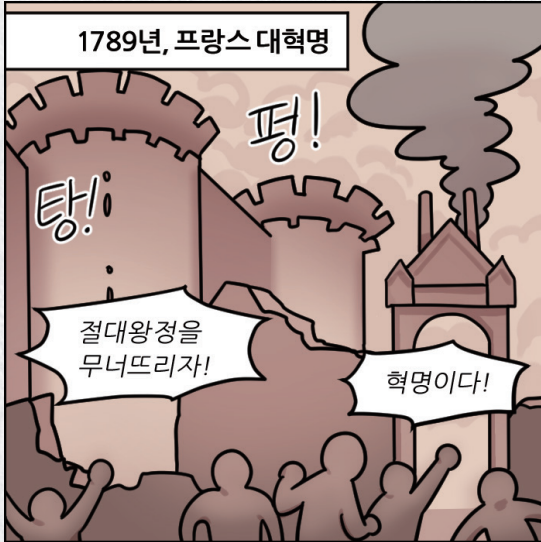
다른 수상작이 궁금하다면? 쉬운 우리말을 쓰자 <https://www.plainkorean.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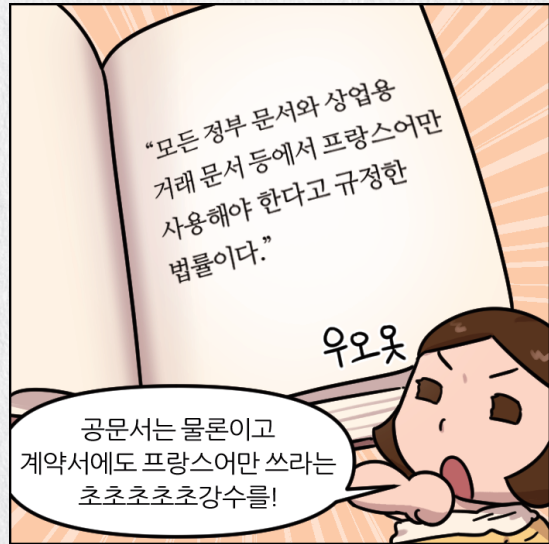
투봉법과 프랑스어 풍부화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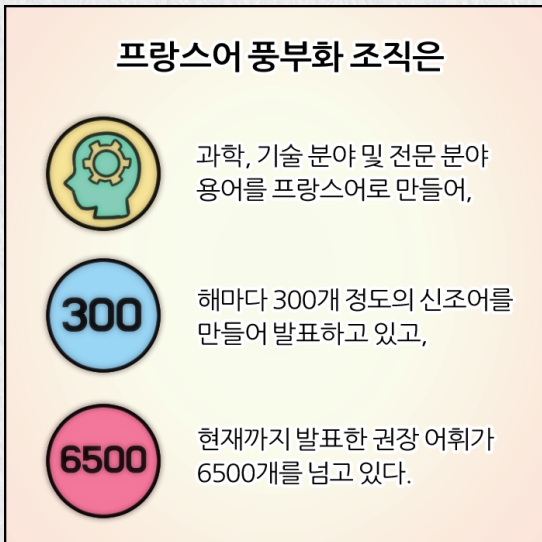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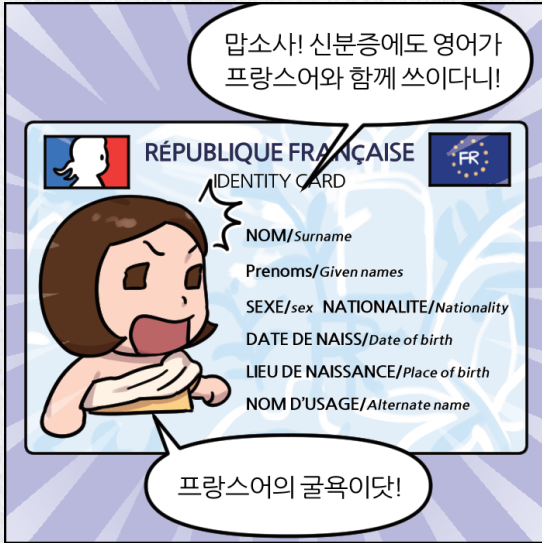
최솔 그림











알기 쉬운 용어가 도농장벽 허물길



채희태

한글문화연대 선임연구원

1980년대를 풍미했던 <백 투 더 퓨처>라는 영화가 있다. 할리우드 대표 감독 스티븐 스필버그가 연출한 사이언스픽션(SF) 영화로 3탄까지 나왔을 정도로 크게 흥행했다. 주인공이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가 결혼하기 전 부모를 만나기도 하고 또 위기에 빠진 자녀를 구하기 위해 미래로 간다는 허무맹랑한 내용이다.

타임머신이라는 게 과학적으로 말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인문학적으로도 <백 투 더 퓨처>는 설정상 명백한 오류가 있다. 예능을 다큐로 받는다는 야유를 감수하고 이야기하자면, 바로 과거에 살고 있는 부모나 미래에 살고 있는 자녀와 아무 문제 없이 의사소통한다는 설정이 오류다. 같은 시대를 공유하며 살고 있는 우리도 서로 말이 잘 안 통하는데 전혀 다른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할까? 현대 철학의 거장 비트겐슈타인은 사자가 말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대화와 소통을 위해 필

요한 건 언어보다 삶이 녹아 있는 문화이기 때문이다.

다양한 전문성들이 벌이고 있는 어려운 용어의 경쟁은 같은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를 사자와 인간으로 갈라놓고 있다. <슬기로운 의사생활> 같은 의학 드라마나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같은 법률 드라마를 보고 있으면 시작부터 끝까지 어려운 전문 용어가 잔뜩 등장한다. 그럼에도 우리는 큰 불평 없이 그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동경심에 빠져 드라마를 시청한다.

1차 산업인 농업이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이고, 독립된 인격체로 성장하기까지 보호해주는 가족이라면, 2·3·4차 산업은 집을 떠나 만나는 낯선 세계라고 할 수 있다. 멀어지고 싶어도 멀어질 수 없는 게 가족이고, 낯선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처받을 때마다 생각나는 존재가 바로 부모님이다. 아이가 알아들을 수 없는 어려운 전문 용어를 쓴다고 부모의 권위가 생길까? 농업도 마찬가지다. 3차 산업인 의료나 법률과 다르게 1차 산업인 농업은 더



가깝게 느껴질 때 진정한 권위를 느낄 것이다.

오래전부터 써왔던 한자 농업용어는 학교에서 한자를 배우지 않은 세대들에겐 마치 암호처럼 들릴 것이다. 마찬가지로 세계화 바람을 타고 들어온 영어식 농업용어는 오랫동안 농촌을 지켜오신 어르신들을 한숨짓게 만든다. 한글문화연대는 몇 년째 어려운 공공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다듬고 있다. 올해는 농촌진흥청과 함께 그동안 미뤄두었던 어려운 농업용어를 다듬고 있다. 경엽(莖葉)·조사료(粗飼料)·파각란(破却卵)·입제(粒劑)·생력화(省力化) 같은 한자 농업용어는 각각 앞줄기·풀사료·깨진달걀·알갱이농약·노동력절감으로, 그리고 영어식 농업용어인 로터리·그린푸드·바이오월·로컬푸드·펫푸드는 각각 흙고르기·건강먹거리·식물담장·지역먹거리·반려동물먹이로

다듬었다. 물론 정답이라기보다는 권장하는 말이다.

일찍이 세종대왕께서 훈민정음을 창제하신 이유는 사대부들이 독점하고 있던 정보의 보를 무너뜨리기 위해서였다. 일반적으로 어려운 용어는 전문가와 대중을 분리함으로써 불필요한 서열을 만들어낸다. 대한민국은 그동안 경제 성장에만 매달려 왔지만 그 과정에서 산업화의 빛과 그림자를 모두 경험하면서 귀농·귀촌 인구들이 서서히 늘고 있다. 한글문화연대와 농촌진흥청이 함께 하고 있는 농업용어 개선 사업을 통해 농촌과 도시 사이에 있던 장벽들이 허물어지고, 우리 모두 농업이 가지고 있는 절박한 가치를 깨닫게 됐으면 좋겠다.

“세종대왕께서 훈민정음을 창제하신 이유는 사대부들이 독점하고 있던 정보의 보를 무너뜨리기 위해서였다. 일반적으로 어려운 용어는 전문가와 대중을 분리함으로써 불필요한 서열을 만들어낸다.”

다듬은 말 목록(집중 개선 용어 50개)

	대상어	다듬은 말
1	경엽	앞줄기
2	곤포	압축포장, 뭉치
3	그린푸드	건강먹거리
4	근채류	뿌리채소류
5	농후사료	알곡사료
6	담수직파	물논 씨뿌리기
7	라이브커머스	실시간 소통 판매
8	로컬 푸드	지역먹거리, 향토먹거리
9	로터리	훅고르기
10	리마인드	상기, 다시 떠올림
11	리플릿	광고지, 홍보지
12	마끼	말이, 두루마리
13	매뉴얼	설명서
14	밀원수	꿀꽃나무
15	바이오마커	생체표지
16	바이오월	식물담장
17	바이오커튼	약취차단망, ~차단막
18	번식우	번식암소
19	분의 처리	가루약문힘
20	삽목	꺾꽂이
21	생력(화)	노동력절감, 노력절감
22	수발아	이삭씩나기
23	십자화과	배추과
24	씨앗키트	씨앗꾸러미
25	아쿠아포닉스	물고기 수경재배법

	대상어	다듬은 말
26	엽채류	잎채소류
27	예찰	예방관찰
28	온택트	영상대면, 화상대면
29	입제	알갱이농약
30	조사료	풀사료
31	종초	씨식초
32	직파	바로 씨뿌리기
33	집란벨트	달걀모음장치
34	착립	알달림
35	커뮤니티 키친	공유부엌
36	컨설팅	전문가 상담
37	쿨링패드	냉각판
38	큐레이션	추천, 맞춤추천
39	테스트 베드	시험(재배)시설
40	토양혼화	토양혼합처리
41	파란	깨진달걀
42	파이프	관, 배관
43	팸플릿	소책자
44	펫 푸드	반려동물먹이
45	포장	재배지
46	푸드 테크	첨단식품기술
47	헬스케어 식물	건강도움식물
48	힐링푸드	치유음식
49	R&D (알앤디)	연구개발
50	TF (태스크 포스)	전담조직

쉬우리와 함께 알아보는 쉬운 우리말!



안녕하세요.
쉬운 우리말을 알리는
귀염둥이 '쉬우리'와 함께
쉬운 우리말 영상 만나볼까요?

쉬운 우리말 누리소통망

인스타그램 @plain_korean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urimal2020>

블로그 <https://blog.naver.com/urimal2020>

기술에 관한 쉬운 우리말

새로 **다들**은 우리말

기술의 발전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데…….

빅 테크, 에듀 테크, 리걸 테크, 푸드 테크까지! 왜 말
은 더 어렵게 쓰는 거죠?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만든 기술 용어가 궁금하다
면?



헛갈리지 않는 쉬운 우리말

헛갈리지 않는 쉬운 우리말

페이스 리프트, 다크 스토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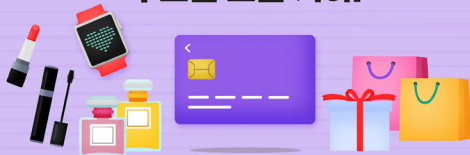
말만 들어선 전혀 모르겠는데 이게 대체 무슨 말인가요?

의역할 필요 없이 헛갈리지 않는 쉬운 우리말을 알아 보아요!



경제에 관한 쉬운 우리말

하지만, **나를 위해서**라면?
무조건 쓰는 거야!



자기 중심 소비

물가도 오르고 경제도 안 좋아진다는데 경제 공부 좀 해야하지 않을까?

그런데 이게 다 무슨 말이지? 이제 돈을 벌려고 해도 외국어를 알아야 하는거야?

우리말 경제 용어 배우고 부자 돼보자고!



친환경 경영에 관한 쉬운 우리말



변화하는 기업 문화

환경 보호와 사회 기여에 앞장서는 기업이 환경·사회·투명 경영의 방식 중 하나로 친환경 유통을 시작했대! 심지어 수익을 내면서도 환경을 해치지 않는 친환경 수익 전략도 세운다고?

당장 확인해봐야겠는걸?



‘원스톱’을 적절한 우리말로!



정부기관, 공공기관에서 한자리에서 일을 처리해주거나 한데 묶어서 처리할 때 ‘원스톱’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한다. 이는 외국어 ‘one-stop’을 한글로 표기만 한 것으로 우리말로 쉽게 풀어쓰기 위한 노력을 들이지 않은 안타까운 단어 중 하나다.

‘원스톱’은 복지, 건강, 안전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한 분야에서 자주 쓰인다. one과 stop이라는 단어를 별개로 보았을 때 전혀 연관성이 없어 국민의 정책 이해도를 떨어뜨리는 단어이다. 특히나 2020년에 실시한 외국어 국민 이해도 조사에 따르면 70대 이상 국민 10명 중 7명은 이

단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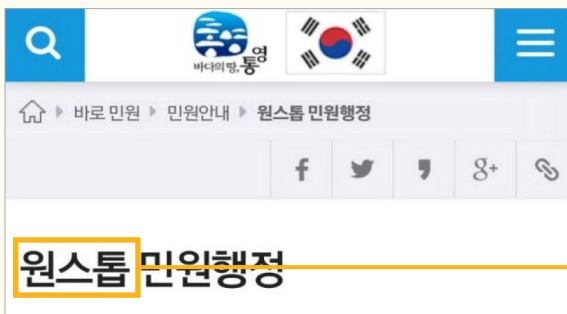
2022년부터 2023년 2월까지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총 77곳에 ‘원스톱’을 ‘통합’, ‘일괄’, ‘한번에’ 등으로 바꿔 써 달라는 공문을 보냈고, 20곳에서 답변을 받았다. 이 가운데 12곳이 우리말로 바꾸거나 변경 계획을 밝혔으며, 6곳은 논의를 거쳐 추후 변경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원스톱’이라는 외국어를 우리말로 바꾼 곳들(12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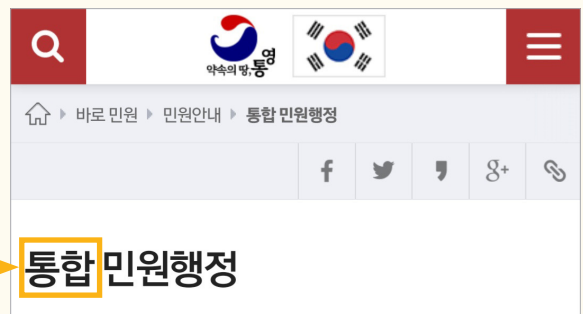
기관	기관	기관	기관
김제시	김포시	대구광역시 달성군	서울특별시 강남구
원주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천광역시 연수구	전주시
청송군	통영시	하동군	화성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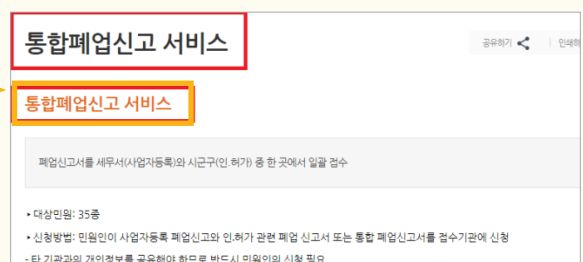
강남구 보건소 누리집



통영시 누리집



화성시 누리집



기관 누리집에 ‘쉬운 우리말 사전’ 무료로 설치하세요.

- 바꿔 써야 할 외국어 단어와 대신 쓸 수 있는 쉬운 우리말 제공
- 공개 에이피아이를 사용하거나 누리집 내 창으로 설치하여 활용



‘쉬운 우리말을 쓰자’(www.plainkorean.kr) 누리집에서는 ‘쉬운 우리말 검색’ 공개 에이피아이를 제공한다. 공공언어에서 사용하는 여러 외국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어 쓰고 싶을 때 언제든지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으며, 무료로 활용할 수 있다.

공개 에이피아이를 활용하여 기관에서 직접 개발하는 것이 어렵다면, ‘쉬운 우리말을 쓰자’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쉬운 우리말 사전’과 ‘외국어 검사기’, ‘쉬운 우리말 도우미 (채팅 로봇)’를 기관 누리집에 그대로 불러와서 활용할 수도 있다.

공개 에이피아이를 활용하거나 쉬운 우리말 도구를 기관 누리집에서 활용하고 싶다면, 한글문화연대(urimal@urimal.org)로 문의하면 된다.

쉬운 우리말 사전

외국어 용어의 쉬운 우리말 표현 사전

키오스크

Q

전체 : 3,612건

한글

전체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로마자

전체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키오스크*

쉬운 우리말

키오스크* ➞

무인 안내기, 무인 단말기, 무인 주문기, 간이 판매대, 간이 매장

원어 표기 | kiosk

바꾸어 쓴 예문

보험료도 키오스크로 납부할 수 있다.

보험료도 무인 안내기로 납부할 수 있다.

식당, 기차역, 버스 정류장, 휴게소에도 키오스크가 대중화되고 있다.

식당, 기차역, 버스 정류장, 휴게소에도 무인 주문기가 대중화되고 있다.

코로나 시대를 맞아 비접촉 키오스크를 개발해 주목을 끌고 있다.

코로나 시대를 맞아 비접촉 무인 주문기를 개발해 주목을 끌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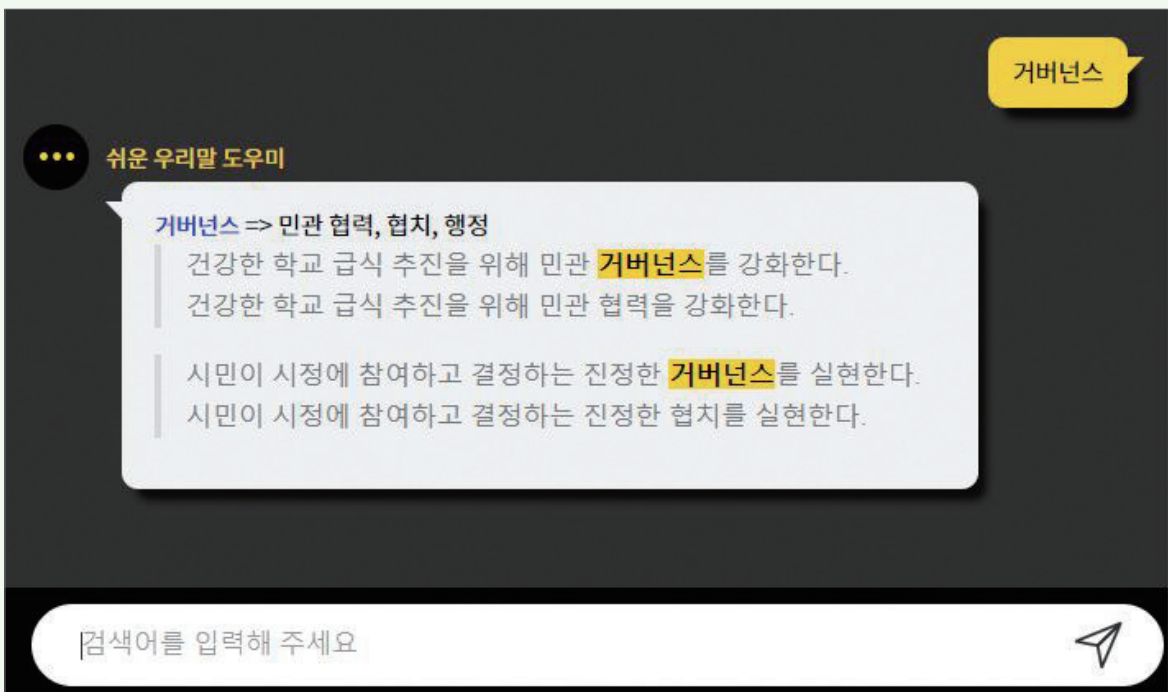
기타 낱말 정보

정부 보도자료 평가용 용어

쉬운 우리말 사전으로 바꿔 써야 할 외국어와 우리말 대체어를 찾을 수 있다.



외국어 검사기로 문장에 외국어를 남용하지 않았는지 손쉽게 검사할 수 있다.



쉬운 우리말 도우미(채팅 로봇)로 우리말 대체어와 예문을 간편하게 찾을 수 있다.

새말모임이란?



문화체육관광부는 '쉬운 우리말 쓰기 사업'의 하나로 국립국어원과 함께 외국어 신조어를 대체할 우리 새말을 제공하는 체계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모이는 모임 이름이 바로 '새말모임'이다. 어려운 외래 용어가 우리 사회에 널리 퍼지기 전에 달마다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말로 다듬어 제공하는 일이다. 이 말은 일반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여론조사도 거친다.

지난해 새말모임에서는 외래 용어 46개를 쉬운 우리말로 다듬었다. 그중 가장 적절하다는 평가를 많이 받은 말은 '열린 침터'이다. '오픈 스페이스'라는 외국어를 바꾼 말로 국민 수용도 조사 결과 93.1%가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그렇다면 이런 모임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 이번 호에서는 새말모임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국립국어원 이수

미 학예연구사를 만나 새말모임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질문1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이수미 안녕하세요. 저는 국립국어원 공공언어과에서 일하고 있는 학예연구사 이수미입니다.

질문2 새말모임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정확하게 무엇을 하는 모임인가요?

이수미 새말모임은 새롭게 들어오는 외래 용어를 대체가 가능한 우리말로 다듬는 일을 하는 위원회입니다. 사회와 기술이 급변하면서 새말이 들어오는 속도도 빨라지

“ 새말모임은 새롭게 들어오는 외래 용어를
대체가 가능한 우리말로 다듬는 일을 하는 위원회입니다. ”



2023년 3월 22일, 올해 첫 새말모임에 참석한 새말 위원들의 모습

고 있는데요. 그만큼 새말모임에서도 다양한 새말을 조사하고, 적절한 우리말로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3 그렇다면 새말모임에는 어떤 분들이 참여하고 있나요?

이수미 앞서 새말모임의 취지가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말로 외래 용어를 다듬어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려면 우리말 대체어를 택할 때 어떤 것을 택해야 할지 다양한 사람에게 물어보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 있는 여러 전문가와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를 고려하여 15명을 위촉하여 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참고로 20대 위원에는 대학생 위원도 2명 있습니다.

질문4 새말모임에서 다루는 단어는 어떻게 선정하나요?

이수미 우선 다듬을 말의 후보군을 뽑을 때 고려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로 다듬을 말은 사회적 흐름이나 시

의적 요구에 따라 그 단어의 쓰임이 많아진 경우를 대상으로 삼습니다. 예로 도어스테핑을 출근길 문답으로 바꾼 것이 있습니다. 둘째로 공공성은 있으나 다수가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다듬을 말 후보가 될 수 있습니다. ‘디제라티, 페일콘’이 예가 되고요. 셋째로 영어권을 포함하여 외국어 사전에서 대응되는 용어를 찾을 수 없거나 있더라도 다듬을 필요가 있는 경우가 해당이 되는데 ‘그루밍 성범죄’를 ‘환심형 성범죄’로 다듬은 것이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외래 용어라고 해서 모든 말을 이 위원회에서 다루지는 않습니다.

질문5 새말모임에서 새말(다듬은 말)을 선정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있나요?

이수미 이때의 새말은 결과인 ‘다듬은 말’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다듬은 말이 선정되면 그 말이 사람들에게 많이 쓰일 수 있어야 새말을 만든 의미도 잘 살릴 수 있으리

“우리가 말을 하는 것은 소통을 위한 것인데 본래의 목적에 맞게 서로가 알아듣기 쉽고 쓰기 쉬운 말일 필요가 있습니다.”

라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다듬을 말의 글자 수와 같거나 좀 더 짧게 다듬고자 하는데요. 다듬을 말의 뜻을 최대한 담기 위해 노력하다 보면 글자 수가 길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새말이 사람들의 입에 잘 붙지 않게 됩니다. 다듬은 말의 의미도 필요한 의미는 살리지만 되도록 글자 수가 길지 않게 다듬고자 합니다.

질문6 올해 새말모임은 작년과 조금 다르게 운영된다고 들었는데요. 작년과 달라지는 점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이수미 작년까지 새말모임은 새말을 선정하는 1조와 기존의 말을 정비하는 2조로 각각 나누어 운영하였습니다. 올해부터는 새말을 다듬고 고르는 일에 좀 더 집중하고자 하나로 합쳐서 운영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새말의 정비도 놓치지 않고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질문7 지난해 11월 30일에 새말이 발표되고 나서, 약 4개월이 지난 지금(3월 13일)까지 새말이 발표되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 올해 새말은 언제부터 만날 수 있을까요?

이수미 앞서 말씀드린 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는 데 시간이 걸려서 3월 22일에 처음 회의를 열었습니다. 4월부터 만나실 수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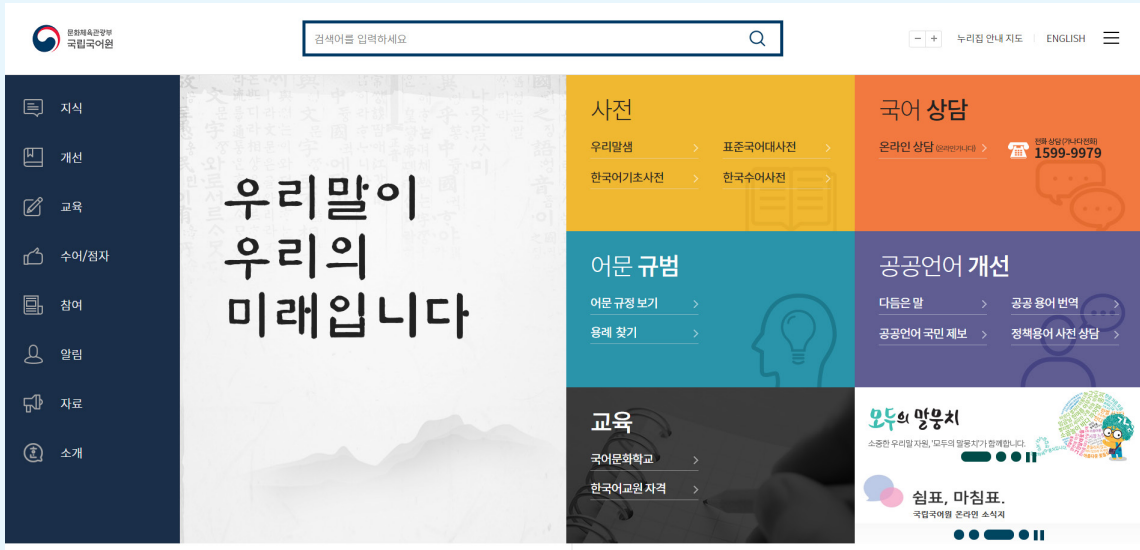
질문8 마지막으로 새말모임 담당자로서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이수미 우리가 말을 하는 것은 소통을 위한 것인데 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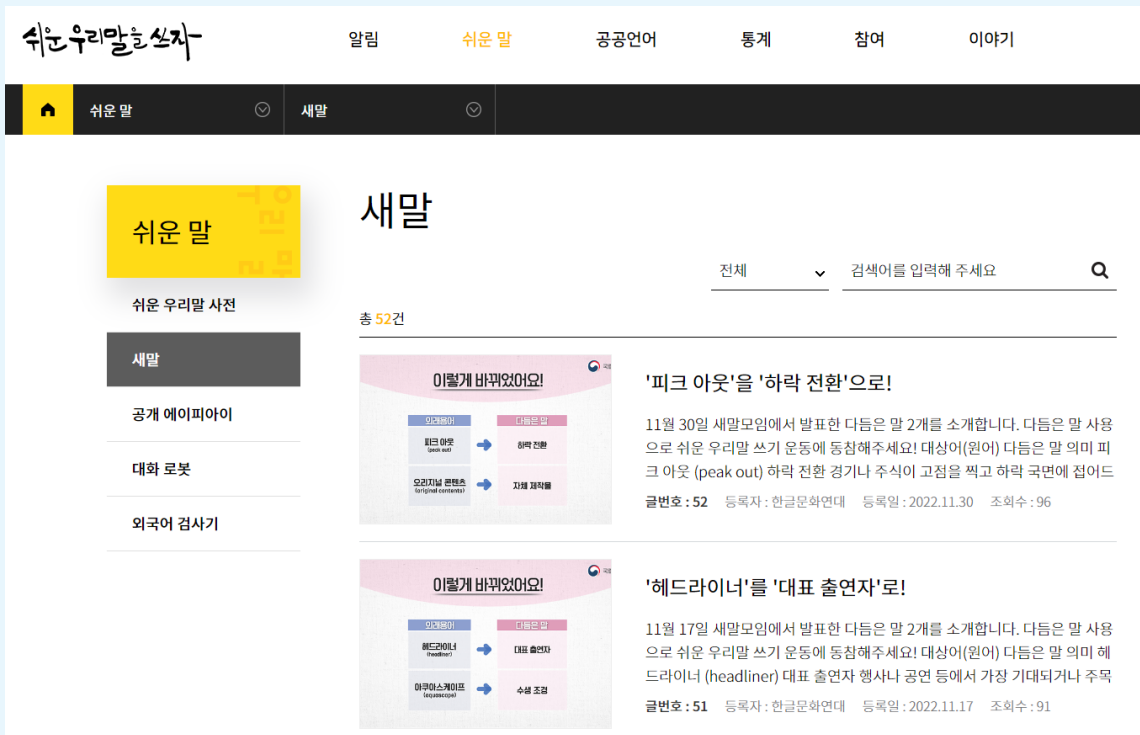
래의 목적에 맞게 서로가 알아듣기 쉽고 쓰기 쉬운 말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는 사실 매일 외국어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쉽게 노출되어 있지만, 나만을 위한 말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말이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쓰고 있는 말에 대해 한번쯤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 ‘무조건 우리말로 다 바꾸자’가 아니라 우리말로도 통할 수 있다면 굳이 외국어를 쓸 필요가 없고 자주 써봐야 어색해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새말모임은 코로나가 창궐하던 2020년부터 ‘부스터 샷(부스터 샷)’은 ‘추가 접종’, ‘위드 코로나 시대’는 ‘코로나 일상’으로 바꾸는 등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용어를 누구보다 앞서서 우리말로 바꾸었다. 또한, 언론에서 자주 언급되는 ‘빅 스텝’처럼 어려운 용어 때문에 국민이 정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대폭 조정’과 같이 쉬운 말로 발 빠르게 다듬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mcst.go.kr)의 검색창에서 ‘새말’을 검색하거나, 국립국어원 누리집(korean.go.kr)에서 ‘다듬은 말’을 검색하거나, 쉬운 우리말을 쓰자 누리집(plainkorean.kr)의 ‘쉬운말>새말’ 화면에서 발표된 우리 새말을 확인할 수 있다.

※ ‘새말모임’이란 어려운 외국어 신조어가 우리 사회에 널리 퍼지기 전에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말로 다듬어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국어, 언론, 문학, 정보통신, 환경 등 여러 분야 사람들로 구성된 위원회



국립국어원 누리집, '공공언어 개선'다듬은 말'



쉬운 우리말을 쓰자 누리집, '쉬운말'새말'

2023년에 꼭 바꿔 써야 할 말 5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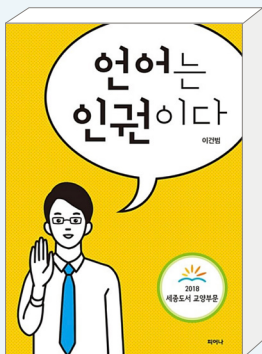
	대상어	원어	다듬은 말	예문
1	AI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 지능	유초중고에 AI → 인공 지능 과목을 신설해 2025년부터 본격화한다.
2	AI	Avian Influenza	조류 인플루엔자	정부가 겨울 철새 이동을 앞두고 AI → 조류 인플루엔자 차단 대비에 나섰다.
3	AR	Augmented Reality	증강 현실	전 세계 어디서나 볼 수 있는 AR → 증강 현실 평화의 소녀상이 개발됐다.
4	ASF	African Swine Fever	아프리카 돼지 열병	ASF → 아프리카 돼지 열병 확산 차단으로 돼지고기 수급에는 영향이 없다.
5	BRT	Bus Rapid Transit	간선 급행 버스(체계)	세종시 내부를 순환하는 BRT → 간선 급행 버스 도로가 조성돼 굴절버스가 다닌다.
6	ESG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사회 가치 경영, 환경·사회·투명 경영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ESG → 사회 가치 경영 이 부각되고 있다.
7	FTA	Free Trade Agreement	자유 무역 협정	한국은 아시아 최초로 중미 5개국과 FTA → 자유 무역 협정 을 체결했다.
8	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	제약 업계에서 의약품 GMP →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 위반 사례가 연이어 나왔다.
9	HACCP	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s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	이달부터 햄·베이컨에도 HACCP →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 이 적용된다.
10	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정보 통신 기술	청년들의 열정과 첨단 ICT → 정보 통신 기술 로 농촌이 바뀌어간다.
11	IoT	Internet of Things	사물 인터넷	돌봄과 IoT → 사물 인터넷 기술을 결합한 디지털 돌봄 사업을 추진한다.
12	IP	Intellectual Property	지적 재산, 지식 재산(권)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IP → 지적 재산 분쟁 대응을 돕는다.
13	IR	Investor Relations	기업 투자 설명회	신산업 증가에 따라 IR → 기업 투자 설명회 전문가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
14	IT	Information Technologies	정보 기술	르네상스 걸작과 IT → 정보 기술 의 만남, '신의 예술가, 미켈란젤로전'이 열린다.
15	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업무 협정, 업무 협약, 양해 각서	세계녹색성장기구는 기획재정부와 MOU → 업무 협약 을 맺었다.
16	NFT	Non-Fungible Token	대체 불가 토큰, 디지털 증서	풍속화 30점을 하나씩 NFT → 대체 불가 토큰 으로 발행하여 판매한다.
17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공적 개발 원조	의료 취약국을 위해 보건 의료 분야의 ODA → 공적 개발 원조 도 계속 확대한다.
18	OTT	Over The Top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OTT →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상위 6개 업체를 대상으로 소비자 만족도를 조사했다.
19	PM	Personal Mobility	개인형 이동장치, 개인형 이동수단	이륜차 및 PM →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제도 정비 등 교통 안전을 강화한다.
20	R&D	Research & Development	연구 개발	감염병특별위원회가 국가 감염병 R&D → 연구 개발 추진 체계를 고도화한다.
21	RPA	Robotic Process Automation	업무 처리 자동화	통지서 발송 업무에 RPA → 업무 처리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한다.
22	SNS	Social Network Service	누리 소통망, 사회 관계망	SNS → 사회 관계망 에서 물건을 구입할 경우 교환이나 환불이 어려울 수 있다.

	대상어	원어	다듬은 말	예문
23	SOC	Social Overhead Capital	사회 기반 시설, 사회 간접 자본	SOC → 사회 기반 시설 의 핵심인 신공항 건설로 경제를 살린다.
24	TF	Task Force	전담반, 전담 조직	아동 학대 처벌 강화를 위한 TF → 전담반 을 구성해 양형기준을 검토한다.
25	UAM	Urban Air Mobility	도심 항공 교통	인천시가 UAM → 도심 항공 교통 특화 도시로 한발 더 나아갈 전망이다.
26	VR	Virtual Reality	가상 현실	게임하듯 VR → 가상 현실 로 실습하고 화상 수업한다
27	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세계보건기구	코로나 시대, WHO → 세계보건기구 가 제안한 새로운 지침을 알아본다.
28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무역기구	호주가 중국의 관세 폭탄에 강력 반발해 WTO → 세계무역기구 제소를 시사했다.
29	XR	eXtended Reality	확장 현실	공공·민간 분야의 XR → 확장 현실 , 사물 인터넷 등 대형 사업에 투자를 지원한다.
30	거버넌스	Governance	민관 협력, 협치	커버넌스 → 민관 협력 을 통한 마을 만들기와 발전 방안
31	디지털트윈	Digital Twin	디지털 복제, 디지털 복제물	디지털트윈 → 디지털 복제물 로 가상 공간에 우리 국토를 구현해 모의실험을 할 수 있다.
32	로컬	Local	지역, 현지, 지방	로컬 → 지역 에 밀착한 문화 정책을 기대한다.
33	리빙 랩	Living lab	생활 실험실, 살아 있는 실험실, 우리 마을 실험실	주민들이 혁신 기술을 체험하고 개선에 참여하는 리빙랩 → 생활 실험실 이 문을 열었다.
34	마스터플랜	Master plan	종합 계획, 기본 계획, 기본 설계	신도시 건설엔 무엇보다 마스터플랜 → 기본 계획 이 중요하다.
35	매칭	Matching	맞춤, 연결, 연계, 대응	연골 인식부터 간병인 매칭 → 연결 까지
36	모멘텀	Momentum	① 동력, 추동력 ② 전환 국면	양국이 대화의 모멘텀 → 동력 을 유지하고, 지속하기로 한 것은 희망적이다.
37	모빌리티	Mobility	이동 수단, 탈 것	더 다양하고 편리한 모빌리티 → 이동 수단 서비스가 일상화된다.
38	아카이브	Archive	자료 보관소, 기록 보관소	항만 개발 등 해양 역사를 아카이브 → 기록 보관소 로 구축한다.
39	엑셀러레이터	Accelerator	새싹 기업 육성 기관, 창업 초기 기업 육성 기관, 창업 기획자	해외 현지 엑셀러레이터 → 창업 초기 기업 육성 기관 을 통해 맞춤형 지원을 한다.
40	엑셀러레이팅	Accelerating	육성, 창업 기획	관광 산업 분야의 엑셀러레이팅 → 창업 기획 , 금융 지원, 성장 지원 등 단계적 지원을 한다.
41	어젠다	Agenda	의제, 가치관	탄소 중립은 이제 중요한 국가적 어젠다 → 의제 가 되었다.
42	워킹 그룹	Working group	실무단, 실무 협의단	코로나19 금융 상황 점검 워킹 그룹 → 실무단 을 만들었다.
43	인프라	Infrastructure	기반, 기반 시설	국가유공자를 위한 의료·복지 인프라 → 기반 을 확충하고 지원도 강화한다.
44	컨소시엄	Consortium	협력체, 연합체, 협력 모임	산·학·연 215개 기관이 컨소시엄 → 협력체 를 구성해 국가 인공지능 역량을 높인다.
45	키오스크	Kiosk	무인 안내기, 무인 단말기, 무인 주문기, 간이 판매대, 간이 매장	식당, 기차역, 버스 정류장, 휴게소에도 키오스크 → 무인 주문기 가 대중화되고 있다.
46	kick off 회의	Kick off	첫 회의, 첫 기획 회의	탄소중립 표준화 전략 협의회의 kick off 회의 → 첫 기획 회의 가 열렸다.
47	테스트 베드	Test bed	가늌터, 시험대, 성능 시험장	국내 첫 12인치 반도체 테스트 베드 → 가늌터 구축이 잘 진행되고 있다.
48	핀테크	Fintech	금융 기술, 금융 기술 서비스	핀테크 → 금융 기술 기반의 새로운 결제 서비스를 개발했다.
49	핫라인	Hot line	직통 창구, 직통 회선, 직통 전화, 비상 직통 전화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장관급 핫라인 → 직통 회선 개선을 추진한다.
50	허브	Hub	거점, 중심, 중심지	전국 17개의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역별 창업 허브 → 거점 으로 활용되고 있다.

우리 말글 교육, 국어 관련 상담, 공공문장 감수 등 공공언어 사용에 도움받을 수 있는 곳들을 소개합니다.

이름	전화번호	소재지
국립국어원	1599-9979	서울
강원대학교 국어문화원	033-250-8137	춘천
경북대학교 국어문화원	053-950-7497~8	대구
경상대학교 국어문화원	055-772-0768	진주
고려대학교 세종 국어문화원	044-860-1910	세종
동아대학교 국어문화원	051-200-7179~7180	부산
목포대학교 국어문화원	061-450-6271	무안
상명대학교 국어문화원	041-550-5391	천안
세종 국어문화원	02-735-0991	서울
안양대학교 국어문화원	031-467-0861	안양
영남대학교 국어문화원	053-810-3561, 3628	경산
울산대학교 국어문화원	052-259-1911	울산
이화여자대학교 국어문화원	02-3277-3250	서울
인하대학교 국어문화원	032-860-8394	인천
전남대학교 국어문화원	062-530-0313	광주
전주대학교 국어문화원	063-220-3095	전주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064-754-2712, 2738	제주
청주대학교 국어문화원	043-229-8311	청주
충북대학교 국어문화원	043-261-3450	청주
한국방송 국어문화원	02-781-3838	서울
한글문화연대 국어문화원	02-780-5084	서울
한남대학교 국어문화원	042-629-7474	대전
한양대학교 국어문화원	031-400-4513	안산
국어문화원연합회	02-2669-9605	서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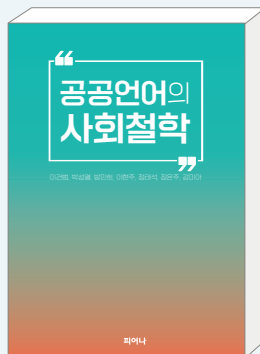
우리 말글 상식, 글쓰기, 공공언어 등을 더 자세히 알고 싶을 때 도움이 되는 책들을 소개합니다.



언어는 인권이다

피어나 | 16,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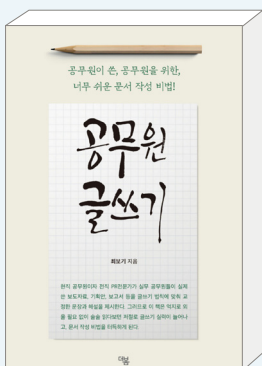
우리 시대에 언어를 바라보는 시각과 태도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책. 국어운동 중심에 섰던 저자는 언어가 단순히 소통의 도구만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인권을 실현하는 연장임을 강조한다. 공공언어를 다루는 공무원, 언론인, 교육자, 사회지도층, 민주시민을 위한 필독서다.



공공언어의 사회철학

피어나 | 25,000원

국민의 안전과 재산, 권리와 의무, 기회와 위험 등을 다루는 공적 정보가 담긴 말, 즉 공공언어가 어떤 사회철학 위에서 쓰이면 공공성이 높아지고 공동선에 다가갈 수 있는지 살펴본다.



공무원 글쓰기

다봄 | 18,000원

현직 공무원이자 유명 북칼럼니스트 최보기 작가가 공무원들이 주로 쓰는 보고서의 단문 및 장문(공지, 보도 자료, 인사말, 연설문, 기고문, SNS)을 간결·명료하게 쓰는 문장비결을 담은 《공무원 글쓰기》를 펴냈다. 일선 공무원들이 쓴 원문과 저자의 교정문, 해설을 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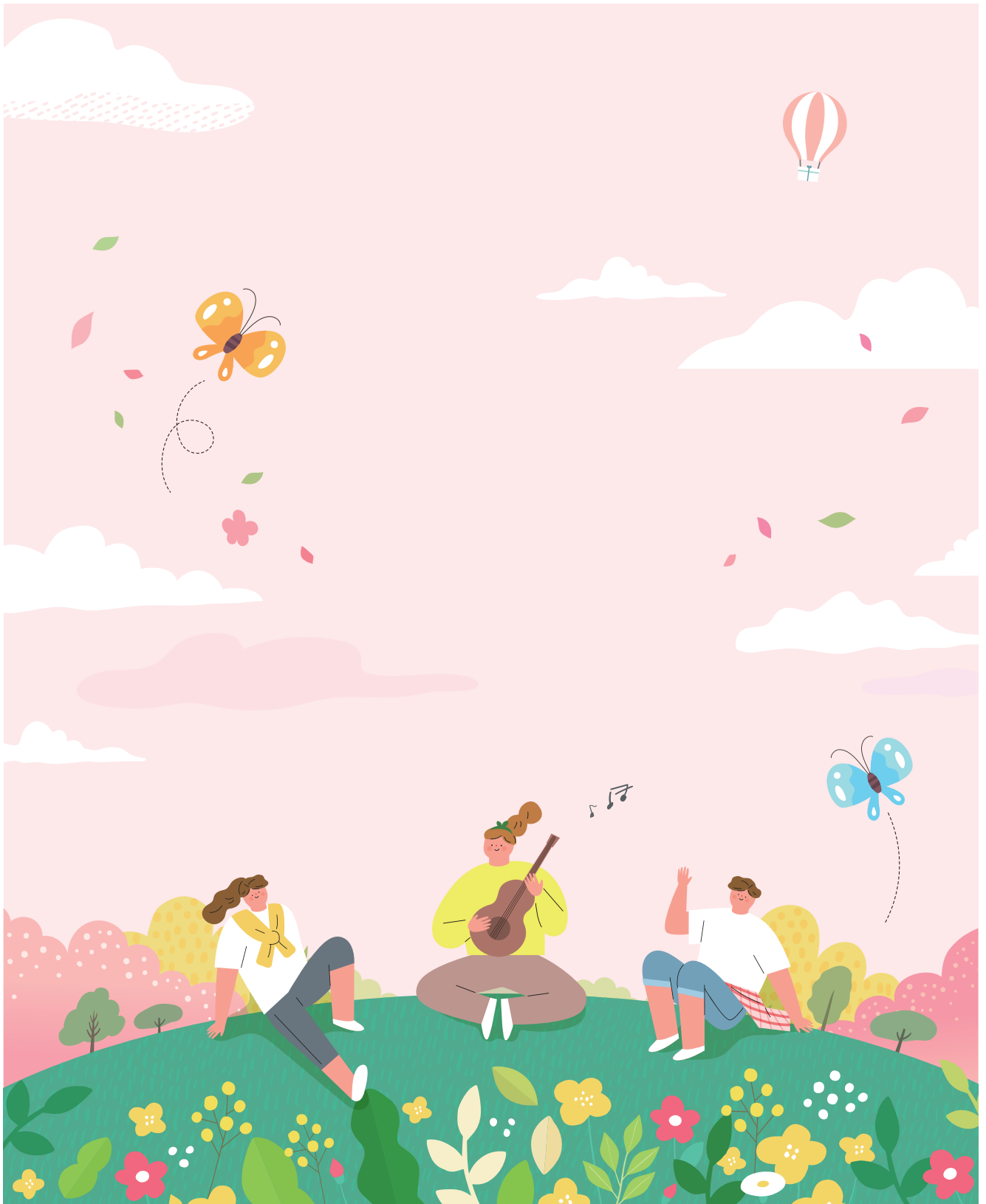


알고 보니 한글은 한국어가 아니래

한국인이 꼭 알아야 할 우리말글 알짜 지식 30

한글문화연대 | 비매품/무료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거나 알아두면 유용한 우리말글 상식 30가지를 담았다. (한글문화연대 urimal@urimal.org로 신청하시면 한정된 수량 안에서 **무료로 보** 내드립니다. 배송비 선불)



쉬운우리말호쓰자

<https://plainkorean.kr>

한글문화연대

<https://www.urimal.org>



9772951011008 3 1
ISSN 2951-0112 (31)